

## 세 계 사

- I.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
- II.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
- III. 인도·서아시아 지역의 역사
- IV. 유럽·아메리카 지역의 역사
- V.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
- VI. 현대 세계의 변화

# 1.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

## 인류의 출현

- 오스트랄로피테쿠스: 최초의 인류, 직립보행 시작
- 호모 에렉투스: 완전한 직립보행, 불·언어 사용
-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: 시체 매장
- 호모 사피엔스: 현생 인류의 조상

## 선사 시대

- 구석기 시대: · 땀석기 사용, 사냥·어로·채집, 이동 생활, 동굴·막집 등 거주  
· 알타미라 동굴·라스코 동굴 벽화, 빌렌드로포의 비너스 제작
- 신석기 시대: · 간석기 사용, 토기 제작, 의복 제작, 농경 시작(신석기 혁명), 정착 생활 시작, 공동 소유·공동 분배  
· 애니미즘, 거석 문화(스톤헨지), 타실리나제르 동굴벽화, 차탈회위크 유적지

## 문명의 발생

- 농업 발달, 노동력 요구 → 부족 간 통합, 도시·국가 성립
- 청동기 사용, 계급 분화, 사유재산 성립, 문자 사용

## 메소포타미아 문명

- 발전: 티그리스강·유프라테스강 유평에서 수메르인이 우르 등의 도시국가 성립 → 아카드인·아무르인 손으로 지배
- 바빌로니아 왕국: 아무르인 건국, 수도 바빌론  
· 함무라비 왕: 메소포타미아 통일, 정복지에 총독 파견, 함무라비 법전 편찬
- 정치·종교: 신권정치, 현세를 중시하는 종교관, 다신교 신앙, 지쿠라트 건설
- 문화: 「길가메시 서사시」, 태음력·60진법 사용, 쇠기문자 사용

## 이집트 문명

- 주요 도시: 멤피스, 테베
- 발전: 나일강 유역에서 통일왕국 등장 → 고왕국·중왕국·신왕국으로 발전
- 정치·종교: 파라오가 태양신 '라'의 아들이자 신으로 군림, 신권정치 실시
  - 내세적 세계관, 피라미드·스핑크스 건설, 「사자의 서」 제작
- 문화: 미라 제작, 상형문자 사용, 파피루스 사용, 태양력·10진법 사용

## 지중해 연안의 문명

- 히타이트: 소아시아(아나톨리아)에서 건국, 철제 무기·전차·기병을 이용한 정복 전개
- 페니키아: 해상 무역 전개, 카르타고 등 식민도시 건설, 포음문자 제작
  - 그리스 전래, 라틴 문자의 기원
- 헤브라이: 팔레스타인 지역 정착, 이스라엘 왕국 건설
  - 솔로몬왕 시기 번영 → 사후 이스라엘·유대로 분열
  - 유일신 신앙의 유대교 발전 → 크리스티교·이슬람교 성립의 기틀
- 에게 문명: 크레타 문명, 미케네 문명 발전 → 도리스인에 의해 멸망, 암흑시대 시작

## 인도 문명

- 인더스 문명: 인더스강 유역에 도시 문명 발달, 모헨조다로·하라파 등 건설, 계획도시 → 홍수·수로 변경 등으로 문명 쇠퇴
  - 청동기·상형 문자·인장 사용,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
- 아리아인의 이동: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생활 → 펀자브 지역 정착
  - 갠지스강 유역 진출
  - 철제 농기구 사용, 브라만-크샤트리아-바이샤
  - 수드라의 카스트제 형성, 브라만교 성립, 「베다」 제작

## 중국 문명

- 선사 문화: 채도·흑도 제작, 얼리터우 유적
- 상: · 도시국가 연맹체, 정인이 점을 치고, 이를 바탕으로 신권 정치 실시  
· 은허 수도 유적, 청동기 사용, 갑골문 제작, 태음력 사용, 순장 풍습
- 주: · 수도: 호경(시안) → 낙읍(뤄양)
  - 발전: 무왕이 상 정복, 주 건국 → 봉건제 시행(혈연적), 영토 확장
  - 쇠퇴: 혈연적 관계 약화 → 봉건제 약화, 견융족 침입 → 낙읍(뤄양) 천도
- 사회: '천자' 개념 사용, 종법 중시, 덕치주의·천명사상 강조

## 아메리카 지역의 문명

- 마야 문명: 멕시코만 일대
- 아스테카 문명: 멕시코고원 일대, 수도 테노치티틀란
  - 그림문자 사용, 피라미드식 신전 건설
  -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침략, 멸망(1521)
- 잉카 문명: · 안데스고원 일대, 수도 쿠스코, 마추픽추 건설
  - 쿠스코에 태양신전 건설, 새끼줄 매듭(키푸)로 정보 교환, 계단식 밭·관개 시설 건설
  - 에스파냐의 피사로 침략, 멸망(1533)

## II.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

### 춘추 전국시대

- 성립: BC 8C 견융족 침입 → 호경(시안)에서 낙읍(뤄양) 천도
- 춘추시대: 춘추 5패(진, 제, 오, 월, 초)가 존왕양이를 명분으로 정국 주도
- 전국시대: 전국 7웅(진, 위, 한, 조, 연, 제, 초)이 약육강식의 패권 경쟁,
  - 군소 제후국 병합 → 진(秦) 통일
- 정치: 영토국가로 발전,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변화
- 사회: · 철제농기구, 우경 보급 → 농업 생산량 ↑, 도전·포전 등 화폐 유통

· 소농민 가족이 사회의 기초 단위로 정착, 사농공상 개념 등장

· 철제 무기 사용 → 전차에서 보병·기병 중심으로 전쟁 양상 변화

→ 일반 백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

·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, 부국강병 추구 → '자' 제충 성장, 제자백가 등장

· 학문: · 유가: 공자·맹자·순자 주장, 가족윤리·도덕정치 주장

· 법가: 상앙·한비자 주장, 군주의 권위·엄격한 법치 주장

· 도가: 노자·장자 주장, 무위자연 주장

· 묵가: 묵자 주장, 차별없는 사랑(겸애) 주장

## 진(秦)

· 수도: 셴양

- 발전: BC 4C 상앙이 법가를 통한 개혁 실시 → 국력 증대

- 시황제: · 구 진왕 정(政), 6국 정복, 중국 통일

· 전국을 36군으로 분할, 군현제 시행, 화폐(반량전)·문자(전서체)

· 도량형·수레바퀴의 폭 통일, 분서갱유 시행

· 흉노 축출 → 만리장성 축조, 광둥·베트남 북부까지 영토 확대

- 멸망: 가혹한 통치, 대규모 토목공사 → 진승·오광의 난 등의 반란으로 멸망

## 한

· 수도: 장안 → 뤼양

- 고조(유방): 한 건국, 장안에 도움, 군국제 실시, 흉노와 화친

- 무제: · 군현제 전국 시행, 동중서의 건의 →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확립,  
태학 설립, 오경박사 설치

·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(→비단길 개척), 흉노 공격, 베트남·고조선 정복

· 소금·철·술 전매제, 군수법·평준법 실시, 오수전 구조·유통

- 왕망: 무제 사후 외척·환관의 권력 투쟁 → 외척 왕망이 신 건국, 전한 멸망  
토지 국유화·노비 매매 금지 등 개혁 실시 → 호족 반발, 신봉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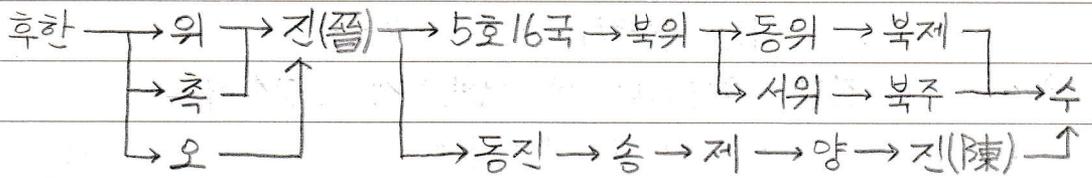
- 광무제(유수): 후한 건국, 뤼양에 도움

- 멸망: 환관·외척의 세력 다툼, 호족의 대토지 소유·횡포 심화
  - 황건적의 난 등의 농민 반란, 후한 멸망, 위·촉·오의 삼국으로 분열
- 사회: 호족성장; 대토지 소유, 지역사회 지배, 향거리선제를 통해 관료로 진출, 중앙정치 주도
- 문화:
  - 사상·종교: 유교: 통치 이념으로 발전, 훈고학 발달
  - 민간 신앙: 신선 신앙 등이 도가와 결합, 태평도.
  - 오두미도 발전
  - 불교: 후한 초 비단길을 통해 전파
- 전한 시기 사마천이 「사기」 편찬(~무제), 후한 대 반고가 「한서」 편찬
- 후한 대 채윤이 종이 개량

## 위진남북조시대

- 위진시대: 위·촉·오의 삼국시대 전개 → 진(晉)의 재통일
  - 황실 내분, 혼란 지속, 죽림칠현 출현
- 5호16국시대:
  - 5호(흉노·선비·저·갈·강) 등의 북방 민족의 남하, 국가 난립
  - 북위(선비족)의 화북통일
  - 진의 강남 이주, 동진 성립(수도 건강(난징))
- 남북조시대:
  - 북조:
    - 북위 효문제: 평성(다툼) → 뤼양 천도, 균전제 시행, 한화정책 추진; 선비족 문화 금지, 한족문화 수용 → 호한 융합, 룡면석굴 조성 시작
    - 선비족 귀족 반발, 사후 동위·서위로 분화
    - 동위(→북제), 서위(→북주) 대립 → 수에 의해 통일
  - 남조: 동진 → 송(수도 건강(난징)) → 제 → 양 → 진(齊)으로 변화, 강남 개발
- 사회: 9품중정제 실시; 유력 호족이 독점 → 문벌 귀족으로 성장
- 문화:
  - 북조:
    - 호한 융합, 국가적으로 유교 존중
    - 불교: 황실 지원, 북위 대부터 원강· 룡면 석굴 등 조성
  - 남조: 귀족 문화 발달, 현실도피적 풍조 확산, 노장사상·청담사상 유행,

- 구마라습, 법현(동진 출신)이 불교 활동 전개
- 태평도·오두미도 + 도가 → 도교 발전, 황실 수용
- 죽림칠현 등장, 「키거래사」(도연명)·「여사잡도」(고개지) 제작



## 수

- 수도: 대흥(장안)
- 문제(양견): · 북주 출신, 수 건국 → 남북조 통일
  - 9품종정제 폐지, 과거제 실시, 균전제·조용조·부병제 정비
- 양제: 영제거·통제거 등 대운하 건설, 돌궐 공격, 고구려 원정 → 실패
- 멸망: 대규모 토목공사·전쟁 → 백성 반발, 각지에서 반란 발생, 멸망

## 당

- 수도: 장안
- 고조(이연): 당 건국(618), 장안에 도읍
- 태종: 동돌궐 정복, 울령 정비 → "정관의 치"
- 고종: 서돌궐 정복, 신라와 연합 → 백제·고구려 제거, 안축산·사사명
- 현종: 경제적 번영, 절도사 설치 → 균전제 붕괴, 안·사의 난 발생(755-763)
- 쇠퇴: 균전제 붕괴, 안·사의 난 → 중앙정부 권위 ↓, 균전제·조용조·부병제가  
 장원제·양세법·모병제로 변화, 절도사의 독자 세력화 → 황소의 난  
 (875~884) →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멸망(907), 5대 10국시대 전개
- 통치: · 3성 6부제 (중서성, 문하성, 상서성) · 주현제 실시
  - 정복지에 도호부 설치, 기미 정책 실시
- 사회: · 귀족 중심; 과거·음서를 통해 관직 독점
  - 화북 지역에서 2년 3작 가능
  - 비전(약속어음) 사용, 행(상인조합) 결성

- 문화: · 과거제 시행, 「오경정의」(공영달) 편찬, 훈고학 집대성
- 불교 성행, 현장·의정이 인도 순례, 불경 수입, 감진이 일본으로 가 계율 전파, 도소다이사 창건
- 조르아스터교, 아슬라교, 네스토리우스교, 마니교 등 유입, 국제 교류 활발
- 대진경고유행중국비 건립, 예빈도 제작, 당삼채 유행
- 이백·두보의 시, 구양순의 글씨

## 송

- 수도: 카이펑 → 항저우(임안)
- 태조(조광윤): 후주 절도사 출신, 송 건국(960)
  - 문치주의 채택, 절도사 권한 약화, 문신 우대, 금군(중앙군) 강화
  - 황제 직속, 전시 정례화
- 약화: 관료수 증가, 국방력 약화, 북방 민족의 압박 → 요(거란)와 전연의 맹약 체결(1004), 서하와 화약 체결, 북방 민족 국가에 서피 지급, 평화 유지
- 신종: 왕안석 등용, 신법 시행; 청모법, 시역법, 모역법, 군수법, 보감법, 보마법
  - 지주·상인·보수파 관료 반발, 신법당-구법당의 당쟁 격화
- 남송: 금과 연합, 요(거란) 멸망 → 금의 침입, 황제 생포됨(정강의 변, 1126), 화북 상실 → 항저우 천도, 남송 수립, 강남 개발
- 멸망: 몽골과 연합, 금 멸망 → 몽골(원)의 침략, 멸망(1279)
- 사회: · 용골차 보급, 모내기법 보편화, 참파벼 도입, 지주전호제 확산
  - 상공업자들이 행·작 결성, 지폐(교자·회자) 유통, 시박사 설치
  - 사대부 등장, 서원 증가, 「자치통감」(사마광) 편찬 ; 편년체 서술
  - 성리학: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, 대의명분론·화이론 중시
- 문화: · 야간 통금 해제, 서민문화 발달 ; 「동경몽화록」(맹원로), 「청명상하도」(장택단, 북송 시기)
  - 인쇄술·화약: 나침반 사용 → 이슬람을 거쳐 유럽에 전파

## 거란(요)

- 수도: 상경(임황)
- 성장: 야율아보기의 건국(916) → 발해 정복(926), 후진에게서 연운 16주 차지(936), 송과 화친(전연의 맹약, 1004)
- 멸망: 송-금 연합·공격 → 금에 멸망
- 사회·문화: 북면관제·남면관제 실시, 거란 문자 사용

## 금(여진)

- 수도: 상경(회령) → 중도(베이징)
- 성장: 완안부의 아구다가 건국(1115) → 송과 연합, 거란 정복 → 송 공격, 카이펑 함락, 황제 생포(정강의 변, 1126) → 중도(베이징) 천도
- 멸망: 송-몽골 연합·공격 → 몽골에 멸망(1234)
- 사회·문화: 맹안·모극제(유목민)·주현제(농경민) 시행, 여진 문자 사용

## 서하

- 성장: 탕구트족 성립, 송 압박 → 화의, 동서 교역로 장악, 고유 문자 사용
- 멸망: 몽골의 침입 → 멸망

## 몽골(원)

- 수도: 카라코룸 → 대도(베이징)
- 칭기즈칸(테무친): 몽골 통합, 쿠릴타이를 통해 칭기즈칸으로 추대  
천호제 제정, 정복전쟁 전개
- 성장: 칭기즈칸 사후 울루스 구성, 정복전쟁 지속 → 대제국 건설,  
흘라구가 흘라구 울루스 성립, 아바스 왕조 정복(1258)
- 쿠빌라이 칸(세조): 대도(베이징) 천도, 국호 '원'으로 개칭, 남송 정복(1279),  
여·몽 연합군 결성, 2차례의 일본 원정 → 실패
- 쇠퇴: 황위 계승 분쟁, 라마교 신봉에 의한 재정 악화, 과중한 세금 징수,  
고초 남발, 물가 폭등 → 백련교도 중심의 홍건적의 난 발생  
→ 주원장(명 태조)에 의해 북쪽으로 축출됨

- 정치: 관료제·주헌제 실시, 몽골 제일주의, 과거제 폐지 → 부활, 약화
- 사회:
  - 몽골인·색목인이 지배층, 한인·남인이 피지배층
  - 목화 재배 확대, 대운하 정비; 항저우-대도 연결
  - 역참 설치, 패자로 이용, 동서고류 활발, 고초 사용
- 문화:
  - 다양한 종교·문화에 관용, 티베트 불교(리마고) 유행, 파스파가 파스파 문자 제작·사용, 곽수경이 수시력 제정
  - 원곡 유행: 「서상기」·「두아원」
  - 마르코 폴로(베네치아 출신, 「동방견문록」 저술), 이븐 바투타(모로코 출신, 「여행기」 저술), 고향 사절 등 방문

## 명

- 수도: 난징 → 베이징
- 태조 홍무제(주원장):
  - 명 건국(1368), 몽골 축출, 몽골 문화 금지
  - 재상제 폐지, 중앙정부(6부) 직접 통솔,
  - 어린도책·부역황책 정비, 육유 반포, 이감제 시행
- 영락제: 자금성 건설, 베이징 천도, 내각 설치, 몽골 공격, 베트남 점령, 정화의 함대 파견
- 쇠퇴: 환관 득세 → 정치 혼란, 북로남왜 → 내각대학사 장거정의 개혁, 일조편법 확대 → 환관의 횡포 심화, 임진왜란 참전, 여진족 성장
- 멸망: 과중한 세금 징수 → 이자성의 난, 베이징 상실, 명 멸망(1644)
- 사회:
  - 신사층 성장, 성리학 관학화, 서민 지위 향상; 항조, 직용의 번
  - 창장강 중류가 곡창지대로 발달, 신작물 전래,
  - 대도시 발달, 산시 상인·회저우 상인 활동, 화관·공소 결성,
  - 은 사용 확대, 은의 대량 유입 → 일조편법 시행, 마저은 사용
  - 초기 해금정책 실시, 조공무역 위주 → 16C 이후 해금정책 완화
- 문화:
  - 왕수인(왕양명)이 양명학 주창; 심즉리·지행합일 주장
  - 실용적 학문 발달; 「천공개물」, 「보초강목」, 「농정전서」
  - 「삼국지연의」, 「수호전」, 「서유기」 인기
  - 마테오 리치: 예수회 선교사, 「곤여만국전도」 제작, 서광계와 함께 「기하월보」 간행

# 청

- 수도: 베이징
- 태조(누르하치): 팔기제 조직, 여진 통합, 후금 건국(1616)
- 태종(홍타이지): 국호 "청" 개칭, 몽골 공격, 조선 공격(병자호란, 1636~1637)
- 순치제: 명 멸망 후 베이징 점령, 천도
- 강희제: 삼번의 난(오삼계 주도) 진압, 타이완의 반청세력 제압,  
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, 인두세 동결
- 옹정제: 군기처 설치, 비밀상주문 제도 시행
- 건륭제: 티베트·신장·몽골 복속, 최대 영토 확보, 「사고전서」 편찬,  
영국의 매카트니 사절단 알현
- 쇠퇴: 백련교의 난 → 지배력 약화
- 통치: | 회유: 만한병용제 실시, 과거제 유지, 신사증 포섭, 대규모 편찬사업 실시  
| 강경: 변발, 호복 강요, 금서 지정, 문자의욕 자행
  - 한족은 구현제로, 몽골·티베트·신장 등의 변부는 토착 지배자를 통해  
간접적으로 통치
- 사회: · 신사증 성장, 서민 지위 향상; 향조, 직용의 번  
· 창장강 상륙가 곡창지대로 발달, 신작물 전래  
· 대도시 발달, 산시 상인·회저우 상인 활동, 회관·공소 결성  
· 은 사용, 지정은제 시행 「성세자상도(고소번화도)」 ↗  
· 초기 해금 정책 실시 → 타이완의 반청세력 진압 직후 해금 해제  
→ 서양과의 무역은 광저우의 공행 무역으로 제한
- 문화: · 고증학 발달; 「강희자전」, 「고금도서집성」, 「사고전서」 편찬  
→ 청 후기 공양학 발달  
· 「홍루몽」 유행, 경극 성행  
· 아담 샬이 역법 개정·천문대 전달, 서양 원근법·음영법 전래  
→ 전례 문제 → 크리스토프 고글지, 서양과의 교류 위축

##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

- 선사 시대: 조몬 시대(신석기) → 야요이 시대 (벼농사·청동기·철기 전래)  
→ 야마타이국 주도의 소국 연합체 등장, 한반도와 교류
- 야마토 정권: -정장: 4C 성립, 다이센 고분 등 대형 고분 건설  
-발전: -6C 백제에서 불교 수용, 쇼토쿠 태자의 주도로  
중앙집권체제 강화, 불교 진흥, 아스카 문화 발달  
-7C 견수사·견당사 파견, 다이카 개신(645)  
-7C 말 '일본' 국호·'천황' 칭호 사용

##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

- 나라 시대: ·헤이조쿄(나라) 천도(710), 견당사·견신라사 파견  
·도다이사 대불전 건설, 「고사기」·「일본서기」·「만엽집」 편찬
- 헤이안 시대: ·황실-귀족 간 대립 → 헤이안쿄(교토) 천도(794)  
·황권↓, 귀족 호족이 장원을 통해 성장,  
무사 등장·성장 → 무사단 형성  
·9C 말 견당사 파견 중지 → 국풍 문화 발달; 가나 사용, 와카 유행, 「겐지이야기」  
·통치: 2관 8성 체제, 태정관 설치

## 가마쿠라 막부

- 성립: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성립(1185), '쇼군' 직위 하사받음
- 몽골의 침입: 몽골의 조공 거부 → 여·몽 연합군의 침략 → 태풍으로 실패  
→ "가미카제" 사용, 신국 사상 유행, 「몽고습례회사」 제작
- 쇠퇴: 무사의 경제적 어려움 → 막부에 반발, 정치 혼란 → 붕괴
- 통치: ·쇼군 ↔ 무사 간 봉건제 형성, 쇼군이 사실상 최고 지배자로 군림,  
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변화

## 무로마치 막부와 전국 시대

- 무로마치 막부: -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토에 개창(1336)
  - 아시카가 요시미쓰 대 명과 국교 수립, 감합 무역 시작
  - 다이묘 성장, 이모작 확산, 다도·꽃꽂이 발전
- 전국 시대: 쇼군의 후계자 분쟁 → 무로마치 막부 쇠퇴, 다이묘 간 패권 경쟁  
→ 오다 노부나가 통일 기반 마련 →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
- 도요토미 히데요시: 일본 통일, 조선 침략(임진왜란, 1592~1598) → 실패

## 에도 막부

- 성립: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(도쿄)에 막부 개창(1603)
- 통치: · 막번 체제: 쇼군이 중앙·직할지 지배, 다이묘가 번(영지) 지배
  - 무가 제법도 실시, 산킨코타이제 실시
- 사회: · 병농 분리, 신분 이동 금지, 조카마치 성장, 조닌 계층 성장
  - 상업 발달, 3도(에도, 고토, 오사카) 발전, 가부나카마(동업조합) 조직
  - 초기에 쇄인장 무역 시행 → 쇄국 정책 실시, 크리스티고 금지, 사무역 통제 → 네덜란드만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교역 허용, 중국·조선과는 교역 지속
- 문화: · 조닌 문화 발달; 가부키, 우키요에 유행
  - 난학(란가쿠) 발전, 「해치신서」(스기타 겐파쿠) 편찬

## 고대 한국의 발전

- 고조선: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
- 삼국시대: 고구려·백제·신라 등장, 중국의 선진 문물 수용, 일본에 전파  
→ 신라-당 연합, 백제·고구려 멸망 → 신라의 삼국 통일(676)
- 남북국시대: 고구려 유민이 발해 건국, 중대성·선조성·정당성의 3성6부제 시행  
→ 신라 쇠퇴, 후삼국 분열, 발해: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(926)

## 고려

- 성장: 왕건이 건국, 후삼국 통일(936)
- 쇠퇴: 13C 몽골의 침략 → 몽골(원)의 간섭을 받게 됨, 원의 일본 원정에 참여 → 공민왕의 개혁 시도

## 조선

- 전기: 성리학 중심의 통치, 신진사대부 중심의 중앙집권체제 확립, 세종 대 훈민정음 창제
- 중기: 임진왜란(1592~1598), 병자호란(1636~1637)
- 후기: · 일본과 교역, 통신사 파견  
· 농업·상공업 발전, 서민 지위 향상, 판소리 유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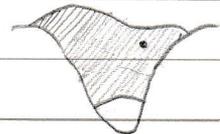
## III. 인도·서아시아 지역의 역사

### 불교와 자이나교의 출현

- 배경: 전쟁·상업 발전 → 크샤트리아·바이샤 성장, 브라만교 비판
- 불교: 고타마 싯다르타 창시, 인간 평등·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 강조
- 자이나교: 바르다마나 창시, 엄격한 계율·고행을 통한 해탈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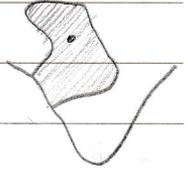
### 마우리아 왕조

- 수도: 파탈리푸트라
- 성립: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인더스강 침공 → 사회 혼란, 통일 자극  
→ BC 4C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마우리아 왕조 건설, 북인도 통일
- 아소카왕: 인도 대부분 통일, 불교 장려, 산치 대탑 등 스투파(탑)·석주 건설
- 쇠퇴: 아소카왕 사후 급격히 쇠퇴
- 문화: 상좌부 불교 발달; 개인의 해탈 강조 → 스리랑카·동남아시아로 전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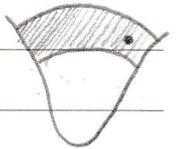
## 쿠산 왕조

- 수도: 푸르샤푸라
- 성장: 1C 이란 제국의 쿠산족의 건국, 중국-서아시아의 중계 무역으로 성장
- 카니슈카왕: 북인도-중앙아시아의 최대 영토 확보, 전성기 구가, 대승불교 진흥
- 쇠퇴: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입 → 쇠퇴
- 문화: · 대승 불교 발달; 중생의 구제 강조, 부처의 신앙 대상화
- 간다라 양식 발달: 인도 + 헬레니즘 양식, 불상 제작



## 굽타 왕조

- 수도: 파탈리푸트라
- 성장: 4C 찬드라굽타 1세의 건국 → 찬드라굽타 2세 대 북인도 통일
- 쇠퇴: 5C 에프탈의 침입, 왕위 분쟁으로 내분 → 6C 멸망
- 문화: · 힌두교 발전: · 브라만교 + 불교 + 민간 신앙, 브라흐마·비슈누·시바 등 숭배
- 왕이 비슈누에 비유, 카스트의 의무 수행 중시, 「마누법전」 정비
- 산스크리트어 공용어, 산스크리트 문학 발달: 「샤쿤탈라」(칼리다사), 「마하라바타」, 「라마야나」
- 굽타 양식: 간다라 양식 + 인도 고유 양식, 아잔타 석굴사원.
- 엘로라 석굴 사원 건립
- 0·10진법 사용, 아리아바타가 원주율 이용, 지구의 둘레 추산.
-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 발견 → 이슬람에 전파



## 가즈니 왕조, 구르 왕조, 출라 왕조

- 가즈니 왕조: 10C 후반 튀르크족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건국, 이슬람 제통, 편자브 지역(인도 서북부) 차지
- 구르(고르) 왕조: 12C 말 등장, 이슬람 제통, 아프가니스탄·개지스강 유역 차지
- 출라 왕조: 9C 남인도 지역에서 성장, 동남아시아·서아시아 무역 전개, 동남아시아에 힌두 문화 전파

## 델리 술탄 왕조

- 성립: 구르 왕조의 아이바크가 델리 정복, 델리를 수도로 이슬람 왕조 수립  
→ 300년간 다섯 왕조의 교체, 북인도 지배
- 사회: 지즈야(인두세) 납부시 타 종교 인정
- 문화: 인도 + 이슬람 문화 융합, 쿠티브 미나르 건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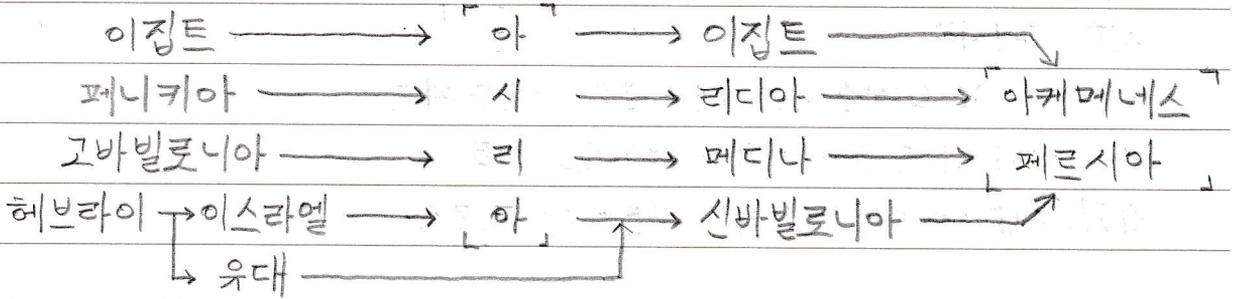
## 무굴 제국

- 성립: 바부르(티무르 후손)가 북인도 정복, 델리 술탄 왕조 정복 →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 개창
- 아크바르 황제: 바부르의 손자, 데칸 고원 이복의 인도 통일, 중앙집권체제 확립, 힌두교 차별 철폐, 지즈야 폐지
- 아우랑제브 황제: 남인도 정복, 최대 영토 확보, 이슬람 제일주의; 힌두교 탄압, 지즈야 부활
- 쇠퇴: 시크고토(파자브) · 바라타 왕국(마라타족 건립, 後 마라타 동맹 수립, 중부 인도)의 반란, 서양 세력의 침투 → 플라시 전투(1757)에서 승리한 영국에 벵골 지역의 통치권 · 조세 징수권 인정
- 사회: · 인도양 무역 주도, 직물업 발달 → 15C 이후 서양 상인이 무역 장악  
· 공식 문서 · 외교 시 페르시아어 사용, 일상에서는 우르두어 통용
- 문화: · 인도 문화 · 이슬람 문화 융합 → 인도 · 이슬람 문화 발전  
· 시크교 발전: 나나크 창사, 황금 사원 건설, 카스트제 · 신분차별 반대  
· 샤 자한 시기 타지마할 건설, 무굴 회화 발달

## 동남아시아 문화의 발전

- 샬렌드라 왕조: 8C 인도네시아 자와에서 성립, 보르부두르 사원 건설
- 크메르 제국(앙코르 왕조): 9C 크메르족이 캄보디아에서 성립, 앙코르와트 건립
- 수코타이 왕조: 13C 태국에서 성립, 와트마하타트 건설
- 프람바난 사원: 9C 자와에서 건설됨

##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



## 아시리아

- 수도: 니네베
- 성장: BC 7C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통해 서아시아의 상당부 통일
- 통치: 정복지에 총독 파견, 중앙 집권 체제 강화,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 건립
- 쇠퇴: 피지배 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 → 각지의 반란으로 멸망

##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

- 수도: 수사, 페르세폴리스
- 키루스 2세: 신바빌로니아 등 서아시아 정복
- 다리우스 1세: 속주에 총독 파견, 감찰관('왕의 눈', '왕의 귀') 파견, 도로망('왕의 길') 건설, 역참제·도량형 정비, 화폐 통일, 수도 페르세폴리스 건설
- 그리스-페르시아 전쟁: 마케도니아와 동맹, 그리스 침공 → 마라톤 전투, 살라미스 해전, 테르모필레 전투 → 페르시아 최종 패배
- 멸망: 그리스-페르시아 전쟁 패배, 지방 총독의 반란  
→ 다리우스 3세 시기 알렉산드로스가 침공 → 이소스 전투(BC333)  
→ 멸망
- 통치: 피지배 민족에게 공납을 받고 전통 신앙 존중
- 문화: · 조로아스터교 신봉: 아후라 마즈다 vs 아리만의 대립, 유대교에 영향  
· 페르세폴리스 건설, 만국의 문 건립, 쇄기 문자 사용

## 파르티아

· 수도: 크테시폰

- 성립: BC 3C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 후 이란계 민족이 건국

- 발전: 로마~인도·중국의 중계 무역으로 쇠퇴

- 쇠퇴: 로마와의 대립, 쇠퇴 →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멸망

## 사산왕조 페르시아

· 수도: 크테시폰

- 성립: 3C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

- 발전: 메소포타미아~인더스강의 대제국 건설,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영

- 쇠퇴: 비잔티움 제국과 계속된 전쟁, 왕실 내분 → 이슬람 제국에 멸망(651)

· 문화: · 조로아스터교 국교화, 마니교 등장

· 금속 세공품· 유리 공예품 발전

## 이슬람교의 성립

- 배경: 6C 이후 사산왕조 페르시아-비잔티움 제국 간 대립 격화 → 흉해.

아라비아 방면의 교역로 활성화 → 메카, 메디나 등 번성, 빈부격차.

부족 간 대립 등 사회문제 발생

- 성립: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이슬람교 창시

· 특징: 우상숭배 배격, 신 앞의 평등 강조

## 무함마드 시대와 정통 칼리프 시대

- 무함마드: · 이슬람교 창시 → 메카의 보수적 귀족이 박해

→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(헤지라, 622)

· 메디나에서 교세 확장 → 메카 장악(630), 아라비아 반도 점령

- 정통 칼리프 시대: · 무함마드 사후 칼리프 선출

· 사산왕조 페르시아·이집트 정복

## 우마이야 왕조

· 수도: 다마스쿠스

- 성립: 4대 칼리프 알리 피살 →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칼리프로 등극,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세습 → 시아파(多) vs 수니파(少) 대립
- 팽창: 인더스강 ~ 이베리아 반도의 대제국 건설, 투르·푸아티에 전투(732)
- 사회·문화: 아랍인 우월주의, 우마이야 모스크 건립

## 아바스 왕조

· 수도: 바그다드 ("세계의 시장")

- 성립: 아바스 가문이 비아랍인·시아파의 도움으로 우마이야 왕조 정복, 아바스 왕조 수립
- 발전: 당과 탈라스 전투(751) → 승리, 동서 무역 장악, 벌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
- 멸망: 지방세력 성장, 이민족 침입 → 11C 셀주크 튀르크에 "술탄" 칭호 부여 → 몽골 제국의 훌라구가 아바스 왕조 정복(1258), 훌라구 울루스 수립
- 통치: 아랍인 특권 폐지, 비아랍인 차별 철폐
- 문화: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 건설

## 후우마이야 왕조

· 수도: 코르도바

- 성립: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이 이베리아 반도에 건국(756)
- 발전: 파티마 왕조가 칼리프 선언 → 후우마이야 왕조도 칼리프 선언
- 문화: 이슬람 문화 전파, 메스키타 사원 건립

## 파티마 왕조

· 수도: 카이로

- 성장: 10C 북아프리카에서 건국 → 카이로 천도 이후 아바스 왕조 권위 부정, 칼리프 자칭

## 셀주크 튀르크

- 성장: 튀르크족이 서아시아로南下, 이슬람교로 개종
- 발전: · 바그다드 입성 (1055), 아바스 왕조로부터 "술탄" 칭호 획득, 정치적 실권 위임받음
  - 예루살렘· 소아시아 (아나톨리아 반도) 진출, 영토 확장
- 쇠퇴: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 → 십자군 전쟁 발발, 국가 분열 → 13C 몽골에 멸망 (1258)

## 이슬람 세계의 사회·문화

- 사회: · 이슬람교: 「쿠란」 중시, 5행 실천, 일부다처 허용, 돼지고기 금기시, 지느야를 거두고 타종교 인정
  - 이슬람교: 아랍어 사용
  - 상업활동 긍정, 다우선을 이용한 해상교역· 육상교역 활발
- 문화: · 동서 문화 융합, 신학·법학·자연과학 발달
  - 모스크 양식·아라베스크 양식 발달, 「아라비안나이트」
  - 아라비아 숫자 완성, 「의학전범」 (이븐 시나)
  - 제지법·나칠반·화약을 유럽에 전파, 르네상스에 영향

## 오스만 제국

- 성장: 튀르크계 오스만족이 소아시아 (아나톨리아) 에서 건국 (1299)  
→ 발칸반도 지배, "술탄" 칭호 사용
- 위기: 티무르 왕조 침입, 앙카라 전투 패배 (1402)
- 메흐메트 2세: 비잔티움 제국 정복 (1543),  
콘스탄티노폴리스 (이스탄불) 천도
- 셀림 1세: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정복, 메카·메디나의 보호권 장악,  
"칼리프" 칭호 획득
- 술레이만 1세: 헝가리 정복 (1526), 빈포위 (1529), 동유럽 진출,  
유럽 연합함대 격퇴, 지중해 무역 장악

- 정치: 레판토 해전 패배(1571), 유럽의 신항로 개척
- 통치: 티마르제(군사적 봉건제) 실시, 데브시르메 제도 → 예니체리·관료 육성
- 사회: · 동서 중계무역으로 번영
  - 지즈야 납부시 타 종교 인정, 밀레트 제도 실시
- 문화: · 이슬람·튀르크·페르시아·비잔티움 문화 융합
  - 술탄 아흐메트 사원(블루 모스크) 건립

## 티무르 왕조

- 수도: 사마르칸트
- 성립: 티무르가 칭기즈 칸의 후예 자처, 몽골 제국의 부활을 포방, 티무르 왕조 설립(1370)
- 성장: 오스만 제국 공격; 앙카라 전투 승리(1402); 델리 술탄 왕조 침공, 동서 무역으로 번영, 서아시아 ~ 중앙아시아의 대제국 건설
- 쇠퇴: 명 정복 시도 중 티무르 사망 → 제국 약화 → 16C 초 우즈베크인에게 멸망

## 사파비 왕조

- 수도: 이스파한
- 성장: 이란 지역에서 이스마일 1세가 건국(1501), 시아파 이슬람교 국교화, "샤"(페르시아의 군주 칭호) 사용, 페르시아 계승의식 포방
- 발전: 아바스 1세 시기 이스파한 천도, 경제 부흥 노력
- 쇠퇴: 왕실 내부 갈등·혼란, 아프간족 침입 → 멸망(1736)

## IV. 유럽·아메리카 지역의 역사

### 폴리스의 성립

- 성립: 산지 <sup>수</sup>, 평야 <sup>소</sup> → 도시국가(폴리스) 형성
- 구조: 아크로폴리스(종교·군사 거점), 아고라(광장, 집회·시장)
- 특징: 동족 의식; "헬레네스" 자칭·동일 언어 사용·올림피아 제전 개최

## 아테네

- 귀족정: 귀족이 정치적 실권 행사 → 상공업 발달, 평민이 중장 보병으로 참전 → 평민의 정치적 권리 향상, 귀족과 대립
- 솔론: 재산에 따른 참정권 분배(금권정) → 귀족·평민 모두 반발
- 참주정: 페이스트라토스 등 참주 등장, 정권 등장
- 클레이스테네스: · 부족제 개편(혈연 → 거주지), 500인 평의회 설치  
· 도편 추방제 실시
- 그리스-페르시아 전쟁(BC 490 ~ BC 479) 승리 → 델로스 동맹 결성, 맹주로 발전, 해상 제국화
- 페리클레스: 민회가 입법권 행사, 특수직을 제외한 관직·배심원 추천제 시행, 공무수당 지급
- 정치: · 아르콘(9명) ← 추천  
          · 500인 평의회 ← 추천 시  
          · 배심원  
          · 장군 ← 선거      · 민회 ← 참가 민 추천
- 한계: 여성·외국인·노예는 참정권 X
- 문화: 파르테논 신전 건설

## 스파르타

- 성립: 도리스인이 원주민 정복, 폴리스 형성
- 통치: 소수의 시민을 통한 군국주의적 체제 발전
- 사회: · 모든 남자 시민에게 집단생활, 군사훈련 실시  
· 피정복민은 헤일로타이(여속농민)·페리오이코이(반자유민)으로  
· 각각 농업·상공업에 종사

## 그리스-페르시아 전쟁(BC 492 ~ BC 479)

- 배경: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 확대, 그리스 세계와 충돌
- 전개: 페르시아, 마케도니아 vs 아테네, 스파르타; 마라톤 전투(BC 490), 살라미스 해전(BC 480), 테르모필레 전투(BC 480)  
→ 3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그리스의 최종 승리
- 영향: 델로스 동맹 성립, 아테네의 해상 제국화

## 펠로폰네소스 전쟁 (BC 431 ~ BC 404) 과 그리스 세계의 쇠퇴

- 배경: 아테네의 세력 확대,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 우선으로 변질
- 전개: 델로스 동맹 (그리스 중심) vs. 펠로폰네소스 동맹 (스파르타 중심)
  - 펠로폰네소스 동맹 승리, 스파르타의 패권 장악
- 쇠퇴: 테베의 패권 장악, 그리스 세계의 내분 심화 → 마케도니아에 정복됨

## 고대 그리스 세계의 문화

- 특징: 합리적, 인간 중심적
- 철학: · 자연 철학: 만물의 근원 탐구
  - 소피스트: 철학의 관심을 인간으로 돌림, 진리의 상대성·주관성 주장
  - 소크라테스: 진리의 보편성·절대성 주장
  - 플라톤 (이상 국가 제시) · 아리스토텔레스 활동
- 문학: · 「일리아드」, 「오디세이아」 (호메로스) 등 서사시 저술
  - 비극·희극 (아리스토파네스 등) 발전
- 역사: 「역사」 (헤로도토스, 그-페 전쟁), 「역사」 (투키디데스, 펠로폰네소스 전쟁)
- 미술: 파르테논 신전 건설

## 알렉산드로스 제국 (마케도니아 제국)

- 필리포스 2세: 그리스 정복 (BC 338) → 동방 원정 계획 중 암살 당함
- 알렉산드로스: 동방 원정 → 이소스 전투 (BC 333), 이집트·페르시아 정복,
  -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, 대제국 성립
  - 전제 군주제 도입, 피정복민의 문화 존중, 그리스인-페르시아인 결혼 장려, 각지에 알렉산드리아 건설, 그리스인 이주
- 분열: 알렉산드로스 사후 마케도니아, 시리아, 이집트로 분열
  - BC 1C 모두 로마에 정복됨

## 헬레니즘 문화

- 특징: 그리스 + 오리엔트 문화 융합, 세계 시민주의, 개인주의적
- 철학: · 스토아 학파: 욕망 억제, 이상적 삶 추구
- 에피쿠로스 학파: 마음의 안정, 만족 추구
- 자연과학: · 아르키메데스: 부력 발견
- 유클리드(에우클레이데스): 기하학 발전
- 지구의 자오선 측정, 태양 중심설 제기
- 예술: 밀로의 비너스상, 라오콘 군상, 니케상 제작, 간다라 미술 성립에 영향

## 로마

- 수도: 로마 → 콘스탄티노폴리스
- 성립: BC 8C 도시국가 로마 성립,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정
- 공화정 수립: BC 6C 귀족이 왕정 축출, 귀족 중심의 공화정 수립,  
2명의 집정관, 원로원, 민회로 구성
- 평민권 성장: · 상공업 발달, 평민이 중장 보병으로 참전, 정치적 권리 요구  
→ 호민관직, 평민회 설치, 12포법 제정
- 독재관 원로원 · 리키니우스-세스티우스법(BC 367): 집정관 2명 중 1명은  
↑ 평민에서 선출
- 집정관 호민관 · 호르텐시우스법(BC 287): 평민회의 의결이 원로원의 동의 없이도  
↑ 민회 평민회 법적 효력을 가짐
- 형식상 귀족과 평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짐
- 팽창: · BC 3C 전반 이탈리아 반도 통일
- 포에니 전쟁(BC 264 ~ BC 146): 카르타고 vs 로마, 한니발 vs 스키피오  
→ 3차례 전쟁에서 승리, 서지중해 장악
- 마케도니아, 그리스 정복
- 위기: 유력자들이 노예 노동을 통한 대농장(라티퐁디움) 경영, 자영농 몰락
- 그라쿠스 형제: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농지법 제정,  
호민관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곡물법 제정 → 귀족 반발로 실패

- 혼란: 귀족과-평민과 간 권력 투쟁, 스파르타쿠스의 난 발생  
- 제 1차 삼두정치: 크라수스, 폼페이누스, 카이사르 구성 → 카이사르가 주도, 갈리아 전쟁 실시 → 반대파에 암살당함

- 제 2차 삼두정치: 안토니우스, 레피두스, 옥타비아누스 구성 → 악티움 해전 (BC 31, 옥타비아누스 vs 안토니우스, 클레오파트라) ~ 이집트 → 옥타비아누스 승리, 로마 지배권 장악

- 옥타비아누스: · 제 2차 삼두정치 참여, 악티움 해전 승리, 혼란 수습 "제 1시민"  
→ 원로원이 "아우구스투스" 칭호 부여; "프린킵스" 자칭  
· 군대 지휘권 장악, 사실상 제정 시작

- 5현제 시대: 평화 & 안정, 최대 영토 확보; "로마의 평화 (Pax Romana)"

- 군인 황제 시대: · 3C 경부터 군대의 정치 개입, 속주의 반란 빈발  
·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대립, 게르만족의 침입  
· 중산층 자유시민 몰락 → 콜로누스 (부자유 소작인)가 콜로나투스 경작

- 디오클레티아누스: 전제 군주제 도입, 제국 4분할 통치

- 콘스탄티누스: · 크리스토포 공인 (밀라노 칙령, 313), 니케아 공의회 개최 (325)  
·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, 천도

- 테오도시우스: 크리스토포 국교화 (392)

- 분리·멸망: 테오도시우스 사후 동·서 로마 분리 (395)

→ 게르만족의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로마 멸망 (476)

· 문화: · 법률: 12포법 (관습법의 성문화) → 시민법 → 만민법으로 발전

· 건축: 아피아 가도, 수도교, 콜로세움, 개선문, 판테온 신전 건설

· 문학: 키케로의 산문,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

· 철학: 스토아 철학 발전

· 역사: 「로마사」(리비우스), 「영웅전」(플루타르코스),

「게르마니아」(타키투스), 「갈리아 전기」(카이사르)

· 과학: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 주장

##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확산

- 성립: 예수 등장, 유대교의 선민사상·율법주의 배경, 보편적 사랑·평등·인간애 주장 → 십자가에 처형 → 베드로·바울 등의 선교, 교세 확산
- 탄압: 초기에 용인 → 크리스트교도의 황제 숭배 거부 → 로마의 박해 → 카타콤에서 활동, 교세 확장
- 콘스탄티누스 시기: · 밀라노 칙령(313, 크리스트교 공인)  
· 니케아 공의회(325): 삼위일체설의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, 아리우스파 이단
- 테오도시우스 시기: 크리스트교 국교화(392)

## 게르만족의 대이동

- 배경: 발트해 지역에서 생활 → 인구 증가, 신규 농지 필요 → 일부가 로마로 남하, 용병·농민으로 생활, 로마에 동화
- 전개: 4C 후반 중앙아시아의 훈족의 압박 → 서고트족을 필두로 서로마 제국에 게르만족 유입, 왕국 건설
- 결과: · 앵글로색슨 왕국, 부르군트 왕국, 서고트 왕국, 반달 왕국, 동고트 왕국, 롬바르드 왕국, 프랑크 왕국 수립  
· 서로마 제국 쇠퇴 → 게르만족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에 멸망(476)

## 프랑크 왕국

- 클로비스: 5C 말 메로베우스 왕조 개창,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
- 약화: 클로비스 사후 왕실 내분, 왕권 약화 vs. 우마이야 왕조
- 카롤루스 마르텔: 공재로 실권 장악, 투르.푸아티에 전투 승리(732)
- 피핀: ·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, 교황의 지지 하에 메로베우스 왕조 축출, 카롤루스 왕조 개창  
· 롬바르드족 공격, 이탈리아 중부 차지 → 교황에게 기증(교황령의 시초)
- 카롤루스 대제: · 피핀의 아들, 구 서로마 제국의 상당부 차지, 전성기 구가  
· 카롤루스 르네상스; 공정 학교 설립, 고전 번역  
· 크리스트교 전파 → 교황 레오 3세가 서로마 황제로 대관(800)

- 분열: 카롤루스 대제 사후 내분 → 베르딩 조약(843), 메르센 조약(870)  
→ 동프랑크, 서프랑크, 중프랑크로 분열

## 동로마 제국(비잔티움 제국)

- 수도: 콘스탄티노폴리스
- 유스티니아누스: 6C 구로마 제국의 상당부 회복, 「유스티니아누스 법전」 편찬, 성 소피아 성당 건립
- 위기: 유스티니아누스 사후 외침 빈발, 관공구제·둔전병제 실시  
→ 8C 발칸반도 남부·소아시아 일부로 영토 축소 → 9C 영토 일부 회복
- 쇠퇴: 지방 유력자의 대토지 사유 심화 → 둔전병제 붕괴, 황제권 약화  
11C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, 서유럽에 구원 요청 → 십자군 전쟁 발발,  
4차 십자군에 약탈당함 → 오스만 제국에 멸망(1453)
- 정치: 황제 교황주의; 황제가 교회 지배
- 문화: · 그리스 정교 + 그리스·로마 문화 + 헬레니즘 문화, 그리스어 공용  
· 비잔티움 양식: 돔 & 모자이크 벽화 ex) 성 소피아 성당

## 노르만족(바이킹)의 이동

- 전개: 스칸디나비아에 거주 → 9C 남하, 국가 건설
- 결과: 노보고로드 공국, 키예프공국, 노르망디 공국, 노르만 왕조 건국,  
스칸디나비아에 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 건국

## 봉건 국가의 성립과 키예프공국

- 카페 왕조: 프랑스 지역에서 성립(987)
- 노르만 왕조: 윌리엄이 영국 지역에서 성립(1066)
- 신성 로마 제국: 오토 1세가 이민족의 침입 격퇴 → 교황이 로마 황제 대관(962)  
→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(독일 지역)
- 키예프 공국: · 슬라브족 국가, 동로마 제국과 교역, 키릴 문자 사용  
· 그리스 정교 국교화, 키예프에 성 소피아 성당 건설

## 동서 교회의 분열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장

- 위기: 7C 5대 고구 중 예루살렘·알렉산드리아·안티오크를 이슬람이 지배, 로마·콘스탄티노폴리스만 잔존
- 성상 파괴령(729): 동로마 제국의 레오 3세가 반포 → 로마 교회의 거부, 동서 교회 대립
- 로마 가톨릭의 성장: 교황-대주교-주교-사제의 계서제 구축, 신분 질서 정당화, 봉토·기증받은 토지로 세력 확대, 대관식으로 국왕 통치권에 신적 권위 부여
- 가톨릭의 세속화: 성직자 혼인, 성직 매매, 성직자가 왕·제후의 봉신화 등 교회 세속화·부패
- 클뤼니 수도원: 베네딕트 규율 준수, 10C 초 교회 개혁 운동 주도
- 동서 교회 분열(1054): 그리스 정교회 & 로마 가톨릭교회로 분리
- 카노사의 굴욕(1077):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군주의 성직자 서임 금지 → 신성로마제국 하인리히 4세의 무시 → 교황이 황제 파문 → 황제가 카노사에서 교황 알현, 사죄
- 십자군 전쟁: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 소집(1095) → 십자군 전쟁 발발(1096~1270)
- 보름스 협약(1122): 교황이 성직자 서임권 차지, 성직자는 황제의 봉신화
- 4차 십자군(1202~1204):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, 라틴 제국 수립(1204)
- 13C: 인토킨니우스 3세 시기 절정; "교황은 해, 황제는 달"

## 봉건 사회의 형성

- 형성: 9C 말 프랑크 왕국 분열, 노르만족·마자르족·이슬람 세력의 침입 → 지방 유력자의 전사 계급화, 여속 농민 발생 → 봉건제 형성
- 주종제: 주군이 봉신에게 토지 지급, 봉신은 주군에 충성·군사적 봉사; 쌍무적 계약 봉신은 독자적으로 재판권·징세권 행사(불입권) → 지방 분권화
- 장원제: 농노가 삼포제로 경작 농노: 결혼·재산 소유 가능, 거주 이전의 자유 X; 여속 농민

## 중세 서유럽의 문화

- 철학: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부 철학 → 십자군 전쟁 이후 스콜라 철학 발달;  
「신학대전」(토마스 아퀴나스, 신앙과 이성의 조화 주장)  
→ 13C 오컴이 신앙과 이성의 분리 주장
- 교육: 초기에 교회·수도원 중심 → 12C 파리 대학·볼로냐 대학 등 대학 성립,  
자치적으로 운영
- 문학: 기사도 문학 유행; 「롤랑의 노래」, 「니벨룽겐의 노래」, 「아서왕 이야기」
- 건축: - 로마네스크 양식: 11C 유행, 돔·원형 아치; 피사 대성당(이탈리아)  
· 고딕 양식: 12C 유행, 첨탑·스테인드글라스;  
켈른 대성당(독일), 샤르트르 성당(프랑스)

## 십자군 전쟁(1096 ~ 1291)

- 배경: 11C 셀주크 튀르크가 동로마 제국(비잔티움 제국) 위협, 동로마 제국 황제가 로마 교황에 지원 요청 →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(1095)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 호소
- 전개: - 1차(1096~1099): 예루살렘 탈환, 예루살렘 왕국 수립(1099)  
- 4차(1202~1204):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, 라틴 제국 수립(1204)  
- 8차(1270): 튀니스 공격
- 영향: · 교황권 약화, 제후·기사 몰락, 왕권 강화  
· 동방 교역 발달 → 이탈리아 도시 번영, 이슬람 문화·비잔티움 문화 유입

## 상업과 도시의 성장

- 교역: · 지중해: 베네치아·피렌체·제노바·밀라노 번영, 롬바르드 동맹 형성  
· 상파뉴 지방: 정기시 발달, 지중해-북유럽 연결  
· 북유럽: 튀베르, 함부르크 번영, 한자 동맹 결성
- 도시: · 초기엔 영주가 지배 → 자치권 획득, 도시민은 신분상 자유  
· 길드 조직, 장인이 직인·도제 거느림

## 고황권의 쇠퇴

- 아비뇽 유수: (1309~1377), 교회와 성직자의 과세 문제로 프랑스의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대립 → 필리프 4세가 삼부회의 지지 획득, 교황 굴복 시킴 → 새 교황이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이주, 프랑스 왕의 통제를 받음
- 교회의 대분열: (1378~1417), 교황청이 로마로 복귀 → 아비뇽에서도 교황 선출, 정통성으로 서로 대립
  - 윌리엄 (영국), 후스 (보헤미아)가 교회의 세속화·성직자의 타락, 성서에 기반한 신앙 강조
- 콘스탄츠 공의회: (1414~1418), 윌리엄 이단, 후스 화형,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, 새로운 단일 교황 선출

## 중앙 집권 국가의 발전

- 영국: - 존 왕이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과중한 세금 부과
  - 귀족 반발, 대헌장 승인 (1215) → 모벌 의회 소집 (1295)
  - 14C 양원제 기틀 마련
- 프랑스 내 영국령 플랑드르 왕위 계승 문제로 대립 → 백년 전쟁 발발 (1337~1453), 초기 영국군 우세 → 패배
- 장미 전쟁: (1455~1485), 왕위 계승 문제로 랭커스터가 vs 요크가
  - 귀족 약화, 왕권 강화
- 프랑스: - 필리프 2세: 귀족 세력 제압, 프랑스 내 영국령 다수 획득
  - 필리프 4세: 교회·성직자 과세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대립
    - 삼부회의 지지 획득, 아비뇽 유수 주도
  - 백년 전쟁 (1337~1453), 초기 프랑스 열세 → 잔 다르크 활약
    - 최종 승리, 중앙 집권의 기틀 마련
- 독일: 신성 로마 제국의 명목상 통치, 제후 세력이 강력
- 이탈리아: 교황령, 베네치아, 피렌체,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
- 이베리아 반도: 이슬람 세력 축출, 아라곤·카스티야 성립 → 15C 에스파냐 왕국 성립

→그라나다 정복(1492)

· 12C 포르투갈이 카스티야에서 독립 → 15C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

### 장원제의 해체와 봉건 사회의 쇠퇴

-배경: ·화폐 경제 발달, 영주가 부역 대신 현물·화폐 요구, 곡물 가격 상승

· 14C 중엽 흑사병 유행, 인구의 1/3 감소 → 농민의 처우 ↑

-전개: ·농노 해방, 자영농 증가 → 장원 해체

· 일부 영주가 직영지 확대, 부역 환원, 농민 억압

→ 자크리의 난(1358, 프랑스), 와트 타일러의 난(1381, 영국) 등 발생

### 이탈리아 르네상스

-배경: 고대 로마 문화 존중, 동로마 제국 멸망 후 학자 유입, 이탈리아 북부 도시의 상인·군주가 문예 후원

·문학: 페트라르카의 서정시, 「데카메론」(보카치오), 「군주론」(마키아벨리)

·미술: 보티첼리(「비너스의 탄생」), 레오나르도 다 빈치(「모나리자」),

미켈란젤로(다비드상, 피에타), 라파엘로(「아테네 학당」)

·건축: 르네상스 양식 발전; 성 베드로 성당

### 과학 기술의 발달

· 화약(→기사 몰락) · 나침반 · 제지술 전래

·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 고안

### 신항로의 개척과 식민지의 성립

-배경: 「동방견문록」(마르코 폴로), 동방에 대한 환상, 향신료·비단 수요 증가,

오스만 제국이 동서 무역 장악 → 신구 무역로 필요

· 포르투갈: ·바르톨로메우 디아스: 아프리카의 희망봉 도착(1488)

·바스쿠 다 가마: 포르투갈~희망봉~캘리컷(인도) 개척(1498)

· 브라질 지역·아프리카·인도 해안에 식민지 건설,

마카오 등의 거점항구 장악, 무역기지로 활동

· 에스파냐: 콜럼버스: 이탈리아인, 에스파냐 여왕이 후원

→ 서인도 제도 도착 (1492)

· 마젤란 일행: 필리핀 도착 (마젤란 살해) → 세계일주 (1519~1522)

· 코르테스가 아스테카 정복 (1521), 피사로가 잉카 정복 (1533)

· 멕시코, 남아메리카 해안, 필리핀에 식민지 건설

## 고역망의 확장

· 삼각 무역: 유럽 ~ 아프리카 ~ 아메리카의 대서양 무역 성립

· 포토시 은광 · 사카테카스 은광 개발, 동인도 회사 설립, 유럽의 아시아 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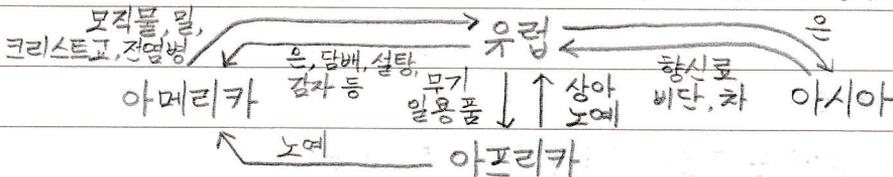
· 상업 혁명: 유럽의 물가 폭등 (가격 혁명), 상공업자 성장

· 세계적 고역망 형성, 어음 · 보험 등 금융제도 발전

· 아메리카에서 옥수수, 담배, 토마토, 감자, 고구마, 코코아 등 수입,  
아시아에서 차, 면직물 등 수입

· 아메리카에 플랜테이션 건설, 금 · 은 등 수탈, 사탕수수 · 밀 · 보리 · 말 전래

아메리카에 천연두 · 홍역 전파, 가혹한 노동 → 원주민 급감



## 종교 개혁

· 루터파: - 배경: 성 베드로 성당 증축 마련을 위해 교황 레오 10세가 면벌부 판매

- 전개: 독일의 루터가 「95개조 반박문」 발표 (1517); 인간의 구원은

신앙과 은총으로 이루어질 주장: 「성서」 강조 → 가톨릭과 대립

→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(1555); 루터파 교회 인정

· 칼뱅파: 스위스의 칼뱅이 「크리스트교 강요」 저술 (1536), 예정설 주장,

검소 · 근면 강조 → 잉글랜드 (청교도), 스코틀랜드 (장로파),

프랑스 (위그노), 네덜란드 (고이센), 프로이센, 북유럽 등으로 전파

· 성공회: 영국의 헨리 8세의 이혼을 교황이 비승인 → 수장법 공포 (1534),

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, 영국 교회를 교황으로부터 독립

→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법 반포(1559), 영국 국교회 확립

- 가톨릭의 대응: - 에스파냐의 로올라가 예수회 설립(1534),

아시아·아프리카·아메리카에서 가톨릭 선교 전개

- 트리엔트 공의회(1545~1563); 교황의 권위 고리 재확인,  
종교 재판소 설치

## 종교 전쟁

· 네덜란드: 에스파냐의 가톨릭 강화 정책 → 고이센 반발, 전쟁 개시(1568)

→ 베스트팔렌 조약(1648)으로 독립

· 프랑스: 위그노 전쟁(1562~1598) → 앙리 4세의 낭트 칙령 반포(1598),  
제한된 지역에서 위그노의 예배의 자유 허용

· 30년 전쟁: 독일에서 발발(1618), 국제전으로 확대

- 베스트팔렌 조약(1648): · 칼뱅파 공인, 스위스·네덜란드 독립

· 신성로마제국의 제후에게 정치적 독립 인정

##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

· 저서: 「우신 여찬」(여라스뮌스), 「유토피아」(토마스 모어)

· 미술: 반에이크 형제가 유희 기법 개발, 브뤼헬 활동

· 문학: 국민 문학 발달: 「돈키호테」(세르반테스, 에스파냐)

· 「로미오와 줄리엣」, 「햄릿」(셰익스피어, 영국)

## 서유럽의 절대 왕정

· 기반: 관료제·상비군 정비, 왕권신수설 제기, 중상주의 정책 실시

· 에스파냐: 펠리페 2세; 레판토 해전(1571)에서 오스만 제국 격파, 포르투갈

병합(1580) → 영국에 무적함대 패배, 극단적인

가톨릭 정책으로 네덜란드 독립, 국내 산업 미육성으로 쇠퇴

· 영국: 엘리자베스 1세: 통일법(1559) → 영국 국교회 확립,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,

동인도 회사 설립(1600)

·프랑스: - 앙리 4세: 낭트 칙령 반포 (1598)

- 루이 14세: · '태양왕' 자칭, 콜베르 등용, 중상주의 정책 시행,  
베르사유 궁전 건설 (거울의 방 등)

- 무리한 전쟁, 낭트 칙령 폐지 (1685)로 위그노 망명  
→ 국내산업 위축, 재정난 심화

## 과학 혁명

·물리학: · 코페르니쿠스: 「천체의 회전에 관하여」 저술, 지동설 주장

· 케플러: 행성의 타원 궤도 공전 발견

· 갈릴레이: 망원경 제작, 지동설 입증

· 뉴턴: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, 기계론적 우주관 확립

· 연구방법론: · 베이컨: 귀납법 옹호

· 데카르트: 연역법 주장

· 의학: · 하비: 혈액 순환론 연구

## 자연법 사상과 사회 계약론

자연법 사상: 법 위에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원리가 있다는 사상

사회 계약론: 개인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출현했다는 학설

· 홉스: 사회계약설 주장, 절대 군주 옹호, 「리바이어던」 저술

· 로크: 저항권 주장, 「시민 정부론」 저술

· 루소: 인민주권의 원리 주장, 「사회 계약론」 저술

## 영국 혁명

- 배경: 젤트리 · 시민 성장, 인클루저 운동 전개,

- 제임스 1세: · 엘리자베스 1세 사후 스투어트 왕조 개창,

· 전제 정치 시행, 의회 무시

- 찰스 1세: 의회 승인 없는 과세, 청교도 박해 → 의회가 권리 청원 제출 (1628),

의회의 승인 하에 과세 의무) → 국왕 승인, but 의회 해산 (1629)

→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 소집(1640)

→ 의회가 국왕의 실정 비판, 과세 요구 거부 → 왕당파-의회파 간 내전 발생(청교도 혁명, 1642) → 크롬웰 주도의 의회파 승리, 찰스 1세 처형, 공화정 수립(1649)

- 크롬웰: · 아일랜드 정복(1649), 항해법 제정(1651); 네덜란드 견제

· 의회 해산, 호국경 취임(1653), 청교도적 금욕·독재 정치 시행 → 국민 불만

- 찰스 2세: 크롬웰 사후 왕정복고(1660), 천가톨릭·전제 정치 시행

→ 의회가 심사법·인신보호법 제정; 토리당(국왕)-휘그당(의회)대립

- 제임스 2세: 심사법, 인신보호법 무시, 천가톨릭 정책 → 의회가 제임스 2세 폐위, 메리 &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( 명예 혁명, 1688)

- 메리 & 윌리엄: 권리장전 승인(1689); 입헌군주제 규정

- 앤 여왕: 스코틀랜드 병합, 연합왕국 성립(1707)

- 조지 1세: 앤 여왕 사후 독일 하노버공 조지 1세 즉위, 하노버 왕조 개창(1714)

'왕은 군립하나 통치하지 않는다' 하의 내각책임제 시행

## 계몽사상

계몽사상: 인간의 이성으로 낡은 관습·미신을 타파하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; 18C 살롱 등을 통해 확산

· 볼테르: 계몽 전제군주 지지, 관용의 원리 주장, 신앙·언론의 자유 강조

· 몽테스키외: 입법·사법·행정의 삼권분립 주장

· 루소: 자유, 평등, 인민 주권 주장

· 디드로·딜랑베르: 「백과전서」 편찬

## 유럽 문화의 발전

· 바로크 양식: 17C 유행, 화려 & 웅장, ex) 베르사유 궁전, 거울의 방

· 로코코 양식: 18C 유행, 섬세 & 우아, ex) 상수시 궁전

## 동유럽의 절대왕정

- 러시아: - 포트르 대제: 시베리아 경영 → 칭과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(1689)  
·상트페테르부르크 천도, 스웨덴과 북방 전쟁 → 승리, 발트해 진출

-예카테리나 2세: 계몽군주 자처, 프로이센·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 분할

- 프로이센: - 프리드리히 2세: "국가 제일의 공복" 자처,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참전 → 쉐레지엔 차지, 상수시 궁전 건설
- 오스트리아: - 요제프 2세: 마리아 테레지아 승계, 계몽군주 자처

## 7년 전쟁(1756~1763)

- 전개: 쉐레지엔을 둘러싼 갈등 →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침공 → 국제전 확대, 영국 - 프랑스 대립. 전쟁; 플라시 전투(1757, 영 vs 프. 벵골)
- 영향: 영국 재정 악화 → 미국 독립 혁명 촉발

## 미국 독립 혁명

- 식민화: 17C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 이주 → 13개의 식민지 건설
- 배경: 영국 재정난 → 식민지에 인지세·차세 등 각종 세금 부과 → 식민지 반발, "대포 없는 곳에 과세 없다" → 차세를 제외하고 다른 세금 폐지 but 반발 지속, 보스턴 차 사건(1773) → 영국이 보스턴 항 폐쇄
- 1차 대륙회의(1774): 필라델피아에서 영국의 탄압 철회 요구
- 렉싱턴 전투(1775): 영국군 - 민병대 간 무력 충돌
- 2차 대륙회의(1776):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, 독립선언문 발표(1776.7.4.); 천부인권, 주권 재민, 저항권 천명
- 독립 전쟁: 초반 열세 → 프랑스·에스파냐 등 지원 → 요크타운 전투 승리(1781) → 파리 조약(1783), 독립 승인
- 미합중국: - 헌법 제정(1787), 정부 수립,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(1789) → 연방주의·삼권 분립에 기초한 미합중국 탄생

## 프랑스 혁명

- 배경: 구제도의 모순, 시민계급 성장, 계몽 사상 확산, 잦은 전쟁·지원, 왕실의 사치  
→ 루이 16세가 삼부회 소집(1789) → 1·2 신분은 신분별 포결 주장, 3신분은 머릿수 포결 주장, 대립 → 1·2 신분 안으로 결성
- 국민의회: · 3신분이 국민의회 구성(1789), '테니스코트의 서약' 결의  
→ 국왕이 국민의회 탄압 → 파리 시민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(1789), 혁명 확산, 농민 봉기, 봉건 문서 소각  
· 봉건제 폐지 선언, 「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(인권 선언)」 발표  
→ 국왕의 외국 탈출 시도 실패, 민중의 반감 자극(1791)  
· 입헌군주제·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의 헌법 제정  
→ 국민의회 해산, 입법의회 수립(1791)
- 입법의회: · 오스트리아·프로이센의 위협 → 프랑스의 선전포고, 혁명전쟁 발발(1792) → 물가 상승·식량 부족 → 파리 민중(상퀼로트) 봉기, 왕궁 습격(1792), 왕권 정지, 국민공회 수립
- 국민공회: · 공회정 선포, 자코뱅파(과격파) 주도로 루이 16세 처형(1793)  
→ 영국 등이 대프랑스 동맹 결성, 내부 반란 발생 → 자코뱅파가 지롱드파(온건파) 제거, 공화제·보통선거제의 헌법 제정(1793)  
· 로베스피에르 주도의 공포 정치: 공안위원회, 혁명 재판소 설치  
· 징병제·최고 가격제 시행  
→ 공포 정치 반발 → 테르미도르의 반동(1794), 로베스피에르 처형
- 총재 정부: 5명의 총재 주도 → 물가 상승, 전쟁 지속, 사회 혼란  
→ 이집트 원정에서 복귀한 나폴레옹이 쿠데타 단행(1799)

## 나폴레옹 시대

- 통령 정부: · 나폴레옹의 쿠데타 → 통령 정부 수립, 제1통령 취임(1799)  
· 오스트리아 격파, 영국과 휴전(1802) → 대프랑스 동맹 붕괴  
· 프랑스은행 설립, 국민교육제도 정비, 「나폴레옹 법전」 편찬(1804)  
→ 국민투표로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(1804)

- 제 1 제정: 나폴레옹이 황제 등극(1804) → 영국을 중심으로 대프랑스 동맹 재결성
  -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에 패배(1805), 오스트리아·프로이센·러시아 격파 → 신성로마제국 해체(1806), 라인 연방 성립
  - 대륙 봉쇄령(1805) → 러시아가 위반 → 러시아 원정(1812~1813)
    - 러시아의 후퇴전술·혹독한 추위로 실패 → 대프랑스 동맹군의 반격
    - 나폴레옹, 엘바섬 유배 → 탈출, 재집권 → 워털루 전투 패배, 몰락(1815)

## 빈 회의(1814~1815)

- 개최: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 주도, 빈에서 개최
- 결과: 유럽의 지배권·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복구, 빈 체제 입성
- 영향: 신성 동맹(러시아·오스트리아·프로이센)·4국 동맹(영·러·오·프로) 결성, 자유주의·민족주의 탄압

## 자유주의·민족주의 운동의 전개

- 독일: 학생 조합(부르셴샤프트) 조직·활동
- 러시아: 차르의 전제 정치·농노제 유지 → 젊은 장교들이 입헌군주제 지향, 데카브리스트의 봉기(1825) → 실패
- 이탈리아: 카르보나리당 조직·활동
- 그리스: 러시아·영국·프랑스 지원 →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(1829)
- 라틴 아메리카: 19C 각국 독립, 볼리바르 활약 → 먼로 선언(1823), 미국의 유럽 간섭 배격 → 독립 가속화

## 7월 혁명과 2월 혁명(프랑스의 왕정복고와 7월 왕정)

- 7월 혁명: -배경: 부르봉 왕조 부활 → 샤를 10세가 의회 해산, 언론 탄압
  - 전개: 파리 시민 봉기 → 샤를 10세 추방, 루이 필리프 추대, 입헌군주제(7월 왕정) 수립(1830.7.)
  - 영향: 벨기에 독립(1831) 자유주의 확대

- 2월 혁명: -배경: 대지주에게 부·권력 집중, 소수 부유층에만 선거권 부여

- 전개: 파리의 중·하층, 노동자가 선거권 확대 요구, 봉기

→ 루이 필리프 축출, 공화정 수립 (2월 혁명, 1948.2.)

- 영향: 오스트리아에서 혁명 발발 (1948.3.) → 메테르니히 실각,

반 체제 붕괴, 각국에서 자유주의·민족주의 운동 발전

##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

· 심사법 폐지 (1828, 비국교도 관직 허용), 가톨릭 해방법 제정 (1829)

· 제 1차 선거법 개정 (1832): 부패 선거구 폐지, 도시 신흥 상공업자에게 선거권 부여

· 차티스트 운동: 노동자 계층이 보통 선거·비밀 투표·보수 지급 등 요구,

「인민헌장」 발표 (1938) → 이후 점진적으로 선거권 확대

· 곡물법 폐지 (1815 → 1846), 항해법 폐지 (1849)

## 산업 혁명

- 배경: 상품 수요 급증 → 선대제·매뉴팩처 발전 → 공장제 기계공업의 등장

- 영국의 산업 혁명: - 배경: 인구 증가, 식민지 건설, 인클루저 운동, 지하자원 풍부

(18C 후반~

· 애덤 스미스: 「국부론」 저술 (1776), 「보이지 않는 손」에 의한

자유방임주의 이론 제기

· 제니 방직기 (1764) 등 방직기·방직기 발명

·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,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 제작

· 신구 발명: 모스가 유선 전신 발명, 풀턴이 증기선 발명, 벨의 전화

· 확산: 19C 초 벨기에, 프랑스 → 독일, 미국 → 19C 말 러시아·일본 발전

## 노동 운동의 등장

· 기계 파괴 운동 (러다이트 운동) 전개

· 노동조합 결성, 노동 조건 향상 요구

→ 영국에서 공장법 제정 (1833), 노동처우 개선

## 사회주의의 등장

- 초기: 푸리에, 생시몽(프), 오언(영) 주장, 협동·공동체 강조  
→ 오언 등이 뉴라나크 등 협동촌 건설

- 과학적 사회주의: 마르크스·엔겔스 주장,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해명 시도,  
노동자의 단결·계급 투쟁을 통한 사회주의의 도래 주장

## 프랑스 제 2공화국과 제 2제정

- 제 2 공화국: 루이 나폴레옹(나폴레옹의 조카)이 대통령으로 당선

- 제 2 제정: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로 황제 즉위(1852)

· 크림 전쟁(1853~1856) 참전 등 대외 팽창

· 프로이센-프랑스 전쟁(1870~1871) 패배, 몰락, 공화정 수립

- 파리 코뮌: 파리의 노동자들이 자치 정부 수립(1871)

→ 프로이센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에 진압됨

## 이탈리아의 통일

- 통일 이전: 여러 왕국, 교황령 등으로 분열, 오스트리아가 북부 지역에 간섭

- 프랑스 2월 혁명 → 마치니·가리발디 등이 청년 이탈리아당 조직,

통일 운동 전개 → 실패

- 사르데냐 왕국: 재상 카보우르가 사보이·니스를 할양하는 대신 프랑스의 지원 획득,  
사르데냐-오스트리아 전쟁 승리(1859), 이탈리아 중·북부 통일

- 가리발디: 의용군을 이끌고 시칠리아·나폴리 등 이탈리아 남부 점령

→ 사르데냐 왕국에 헌상 → 이탈리아 왕국 성립(1861)

- 확장: 베네치아 병합(1866), 교황령 병합(1870)

## 독일의 통일

- 통일 이전: 프로이센 등 소국으로 분열, 프로이센 &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연방 형성

- 프로이센 주도로 관세동맹 체결(1834), 경제 통합

-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(1848~1849): 독일 통일 논의 → 실패

- 프로이센: - 재상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 추진, 군비 증강

· 덴마크와 전쟁 → 승리(1864), 프로이센-오스트리아 전쟁 → 승리,  
북독일 연방 결성(1867)

· 프로이센-프랑스 전쟁(1870~1871) → 승리, 남독일 지역을 연방에 가입,  
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빌헬름 1세가 황제로 즉위,  
독일 제국 수립(1871)

## 미국의 발전

- 확장: 독립 후 서부 개척 추진 → 19C 중반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

- 남북 전쟁: - 배경: 남부는 노예를 통한 대농장 경영, 자유무역 주장 } 노예제로  
북부는 임금 노동자를 통한 상공업, 보호무역 주장 } 대립 격화

- 전개: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 → 남부 7주가 연방 탈퇴, 남북 전쟁 발발  
(1861) → 초기 남부 우세 →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 발표(1863),  
전세 역전 → 북부의 최종 승리(1865)

- 발전: 산업 혁명, 대륙 횡단 철도 개통(1869), 이민자 유입, 시장 확대

## 러시아의 발전

- 자유주의 운동: 19C 차르의 전제 정치·농노제 지속 → 데카브리스트의 봉기(1825)

- 니콜라이 1세: 흑해 방면으로 남하 정책 추진 → 크림 전쟁(1853~1856,  
러 vs 오스만+영·프·프로이센 지원) → 패전

- 알렉산드르 2세: · 농노 해방령(1861) → 농민에게 혜택 X  
· 지식인들이 브나로드 운동(계몽 목적) 전개 → 실패  
→ 일부 무정부주의자가 알렉산드르 2세 암살(1881),  
차르의 전제 정치 강화, 자유주의 운동 탄압

## V. 제국주의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

### 제국주의

- 형성: 자본주의 발달 → 저가의 원료 공급지, 상품 판매 시장, 잉여자본 투자처 필요 → 대외 팽창, 식민지 건설
- 특징: · 사회 진화론, 인종주의 기반

###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

- 전개: 리빙스턴·스탠리 등의 탐험 → 제국주의 열강 침략
- 영국: · 3C 정책 (카이로-케이프타운-콜카타) 정책 · 종단 정책 추진
  - 수에즈 운하 경영권 차지, 이집트에 내정 간섭 → 이집트 보호국화 (1914)
  - 앵글로-이집트 수단 설립; 이집트와 함께 수단 지배, 우간다·케냐·나이지리아·남아프리카 연방·로디지아·감비아·시에라리온 지배
  - 프랑스와 파소다에서 충돌 (파소다 사건, 1898)
- 프랑스: · 모로코·알제리·튀니지·프랑스령 서아프리카·프랑스령 콩고·지부티·마다가스카르 지배; 횡단 정책 추진
  - 영국과 파소다 사건 발생 (1898), 독일과 모로코 사건 발생 (1905·1911)
- 독일: · 토고, 카메룬, 독일령 동아프리카,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지배
  - 프랑스와 모로코 사건 발생 (1905, 1911)
- 이탈리아: 리비아, 에리트레아, 소말리아 지배
- 포르투갈: 앙골라, 모잠비크 지배
- 벨기에: 레오폴트 2세 하에 벨기에령 콩고 지배
- 에스파냐: 서사하라 지역 지배

### 열강의 아시아·태평양 분할

- 영국: · 플라시 전투 (1757), 인도 장악 → 영국령 인도제국 수립 (1877).
  - 미얀마 식민화 → 인도에 병합 (1886), 말레이 반도·보르네오 북부 점령, 말레이 연방 수립, 솔로몬 제도·피지·사모아 지배
  - 오스트레일리아·뉴질랜드 자치령화,

- 프랑스: 베트남·캄보디아·라오스 점령 →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(1887)
- 네덜란드: 자와·수마트라·보르네오 점령 → 네덜란드령 동인도 수립(1904)
- 미국: 에스파냐와 전쟁(1898) → 승리, 필리핀 식민화, 괌·하와이 차지
- 독일: 비스마르크 제도·마셜 제도 점령
- 에스파냐: 필리핀 식민화 → 미국-에스파냐 전쟁 패배(1898), 필리핀 할양

## 아편 전쟁과 청의 개항

- 배경: 광저우에서의 공행 무역 → 영국의 무역적자 지속 → 인도의 아편 밀무역
- 제1차 아편전쟁: 아편 중독자 급증, 은 유희 → 청이 일칙서를 광저우로 파견, 아편 단속 → 영국의 청 공격(1840~1842) → 영국 승리
- 난징 조약(1842): 상하이·광저우 등 5개항 개항, 공행 무역 폐지, 영국에 홍콩 할양
- 추가 조약: 영사 재판권·최혜국 대우 인정
- 제2차 아편전쟁: 대중국 수출 진전 X → 아로호 사건을 구실로 영·프 연합군이 청 공격(1856~1860) → 텐진·베이징 점령
- 텐진 조약(1858):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, 난징 등 10개항 개항, 크리스티고 선교의 자유 인정
- 베이징 조약(1860): 텐진 조약 비준, 영국에 주룽반도 할양, 텐진 개항, 러시아에 연해주 할양

## 태평천국 운동(1851~1864)

- 배경: 아편 전쟁으로 인한 청 정부의 권위 추락, 조세 부담 가중
- 성립: 홍수전이 크리스티고를 바탕으로 상제회 조직 → '멸만홍한' 주장, 태평천국 수립, 난징에 도읍
- 정책: 천조전무제도(토지 균분, 남녀 평등), 전족·아편 금지
- 멸망: 내분, 향용(한인 관료·신사 조직)의 반격, 서양의 청 지지 → 실패, 붕괴

## 양무운동

- 주도: 증국번, 이홍장 등 한인 관료
- 전개: '중체서용' 기반, 금릉기국설치, 근대적 육·해군 창설
- 한계: 체계적인 계획 X, 의식·제도 개혁 X → 청·일 전쟁 패배

## 청·일 전쟁(1894~1895)과 변법자강 운동(1898)

- 청·일 전쟁: 조선에서 동학 농민 운동 발생 → 청-일본 전쟁 발발 → 일본 승리
- 시모노세키 조약(1895): 일본에 랴오둥반도·타이완 할양
- 러시아 주도로 삼국간섭 전개, 랴오둥반도 반환됨
- 변법자강 운동: · 주도: kang우웨이·량치차오 ; 광서제 호응 (무술 변법)
- 전개: 입헌군주제 목표, 과거제 개혁,
- 결과: 서태후 등 보수파의 무술정변 → 실패

## 의화단 운동(1899~1901)과 광서신정

- 전개: 백련교도가 산둥 지방에서 의화단 조직 → 의화단이 '부칭멸양'을 내걸고 봉기, 외국인·교회·철도 공격, 베이징의 외국 공관 습격
- 영국·프랑스·일본 등이 8개국 연합군 결성, 의화단 진압
- 신축조약(베이징 의정서, 1902):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 허용
- 광서신정: 과거제 폐지, 신식 군대 양성, 헌법 제정 준비

## 신해혁명(1911)과 위안스카이 정부

- 배경: · 의화단 운동 이후 청 타도를 목표로 혁명 운동 확산
- 쑨원이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 결성(1905), 삼민주의 주창
- 신해혁명: 청 정부가 민간 철도 국유화, 차관 도입 시도 → 반대 운동 확산, 쓰촨 봉기 → 신군의 우창 봉기(1911) → 각성 독립 선언
- 난징에서 중화민국 수립(1912), 쑨원을 임시대총통으로 선출
- 청 정부가 위안스카이 등용 → 위안스카이-혁명군 타협, 선통제 퇴위, 청 멸망(1912),

- 위안스카이 정부: 위안스카이가 임시대총통 → 대총통 취임

· 혁명과 탄압, 황제 체제 부활 시도 · 황제 취임(1915) → 실패

· 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「21개조 요구」 강요

· 위안스카이 병사 → 군벌 난립 · 할거

- 신문화 운동: 천두슈 · 후스 주도, 유교 문화 비판, 과학 · 민주주의 수용 주장,

잡지 「신청년」 간행

##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정부의 수립

- 개항: 미국의 페리 제독이 무력시위 → 일본 굴복

· 미일 화친 조약(1854): 시모다 · 하코다테 개항, 최혜국 대우 인정

· 미일 수호통상 조약(1858): 나가사키 · 고베 · 요코하마 · 나가타 개항,

영사재판권 인정, 협정관세 체결

→ 러시아 · 영국 · 프랑스 · 네덜란드와도 불평등 조약 체결

- 메이지 정부의 수립: 경제 혼란, 굴욕적 외교 비판 → 하급 무사 주도로 존왕양이

운동 발생 → 사쓰마번 · 조슈번 주도로 막부 타도,

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 수립(1868)

## 메이지 유신과 일본의 대외 팽창

· 메이지 유신: “에도” → “도쿄” 수도로 지정, 폐번치현(1871) → 중앙집권체제 수립

· 봉건적 신분제 폐지, 징병제 실시, 의무교육 도입,

·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(1871~1873), 신토 사실상 국교화

· 자유민권 운동; 의회 개설 · 헌법 제정 요구 → 정부의 탄압,

일본제국 헌법 제정(1889), 의회 설립(1890), 교육칙어 제정(1890)

· 대외 팽창: 1870년대 정한론 주장, 운요호 사건(1875) → 강화도 조약 체결(1876)

· 타이완 침공(1874), 류큐 병합 · 오키나와현 설치(1879)

· 동학 농민 운동 → 청 · 일 전쟁(1894~1895) → 승리, 시모노세키 조약

체결(1895, 조선에 대한 정의 불간섭, 타이완 · 랴오둥반도 차지)

→ 러시아 · 프랑스 · 독일의 삼국간섭(1895), 랴오둥반도 반환

·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→ 영·일 동맹 체결(1902), 러·일 전쟁 개전(1904~1905) → 일본 승리, 미국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 체결(1905, 한반도·만주의 우위 인정) → 대한제국 강제 병합(1910)

##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

- 개항: 운요호 사건(1875) → 강화도 조약 체결(1876)
- 갑신정변(1884): 급진 개화파의 정변 → 청 개입, 실패
- 동학 농민 운동(1894~1895) → 정부군·일본군 진압, 청·일 전쟁의 배경
- 갑오개혁(1895) → 고종이 대한제국 수립(1897), 광무개혁 추진  
→ 일본의 강제 병합(1910)

## 세포이의 항쟁

- 배경: 플라시 전투(1757) → 19C 영국이 거의 모든 지역 점령, 원료 공급지 겸 상품시장으로 사용, 힌두교 - 이슬람교 갈등 조장, 과도한 토지세 부과
- 전개: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세포이가 탄약통의 기름 문제로 봉기, 델리 점령  
→ 영국의 무력 진압
- 결과: 무굴제국의 황제 폐위 → 인도 통치 개선법 제정(1858), 동인도 회사 해체 → 빅토리아 여왕을 황제로 하는 인도 제국 수립(1877)

## 인도의 민족운동

-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: 19C 람 모한 로이 제창, 순수 힌두교로의 복귀 주장  
→ 우상숭배 배격, 카스트제 반대, 사티 폐지 등으로 발전
- 인도 국민회의: - 초기: 영국이 인도인 회유를 위해 지식인·관리를 통해 뭄바이에서 결성(1885), 영국의 지배 인정·인도인 권익 확보 노력
- 변화: 영국이 벵골 분할령 발표(1905) → 틸라크 등이 콜카타 대회 주도(1906), 스와데시·스와라지·영국 상품 불매·국민 교육 진흥의 4대 강령 채택  
→ 영국이 전인도 이슬람교도 연맹 결성 지원(1906)  
→ 벵골 분할령 취소(1911),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 인정

##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

- 태국: 짜그리 왕조 라마 5세의 근대화 정책 → 영국-프랑스 간 완충지대로 독립 유지
- 베트남: • 근왕 운동 전개 (1885~1889) → 실패  
• 판보이쩌우: 베트남 유신회 조직 (1904), 동우 운동 전개 (1905), 중국 망명 후 베트남 광복회 조직
- 필리핀: • 호세 리살: 「나에게 손대지 마라」 저술, 필리핀인-에스파냐인의 동일한 권리 요구, 필리핀 민족동맹(필리핀 연맹) 결성 (1892)  
• 아기날도: 미국-에스파냐 전쟁에서 미국 지원, 필리핀 공화국 선포 (1899) → but 미국이 필리핀 식민화
- 인도네시아: 이슬람 동맹 결성 (1912)

## 오스만 제국의 민족운동

- 배경: 오스만 제국 쇠퇴, 이집트 자치, 그리스 독립 허용, 유럽 영토 상실
- 탄지마트 (1839~1876): 중앙 집권적 행정 체계 마련, 신교육 제도 도입 (1876)  
미드하트 파샤가 입헌군주제·의회 설립을 규정한 헌법 공포  
but 보수 세력 반발, 외세 간섭으로 실패  
→ 러시아·튀르크 전쟁 (1877~1878), 압둘 하미드 2세가 전제 정치 강화
- 청년 튀르크당 혁명 (1908): 청년 장교·지식인이 청년 튀르크당 결성, 무장봉기로 집권  
헌법 부활, 근대화, 조세 절감, 튀르크 민족주의 제창

## 아라비아와 이란의 민족운동

- 아라비아: 압둘 와하브의 와하브 운동 (이슬람교 순수함 복귀 주장), 와하브 왕국 수립 →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수립 계기
- 이란: 카자르 왕조 쇠퇴, 러시아·영국 압박 → 영국이 담배 제조·판매 독점권 획득  
→ 담배 불매 운동 전개, 입헌 정치 요구 → 입헌 혁명 (1906), 국민의회 설립, 헌법 제정 → 영·러 간섭으로 좌절, 사실상 분할 통치

## 아프리카의 민족운동

- 이집트: 무함마드 알리 총독 대 오스만 제국에서 자치권 획득 → 수에즈 운하 개통 (1869) → 부채 급증, 영국이 수에즈 운하 경영권 차지, 영국·프랑스의 내정간섭 → 아라비 파샤가 "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" 제창, 혁명 발발(1881) → 영국군에 진압 → 영국의 보호국화(1914)
- 수단: 영국-이집트 공동 통치(앵글로-이집트 수단) → 무함마드 아흐마디가 "마흐디" 자칭, 마흐디 운동 전개 → 실패
- 에티오피아: 메넬리크 2세가 근대화 정책 추진 → 아도와 전투(1896), 이탈리아에 승리 → 독립 유지
- 나미비아: 헤레로족의 봉기(1904) → 독일이 학살·진압
- Zululand 왕국: 영국의 침략 → 이산들와나 전투 승리(1879) → 영국의 최종 승리

## 유럽 열강의 대립

- 독일: 비스마르크가 유럽 현상 유지·프랑스 고립화 추진, 오스트리아·헝가리-독일-이탈리아의 3국 동맹 체결(1882) → 비스마르크 퇴진 이후 3B 정책(베를린-비잔티움-바그다드) 추진, 모로코 사건(1905, 1911)
- 영국: 3C 정책 추진(카이로-케이프타운-콜카타), 프랑스-영국-러시아의 3국 협상 체결(1907)
- 독일·오-헝의 범게르만주의 vs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 대립
- 오-헝이 보스니아·헤르체코비나 합병(1908) → 세르비아 등 발칸 동맹이 발칸 전쟁 개전(1912~1913), 오스만 제국에 승리

## 제 1차 세계대전(1914~1918)

- 사라예보 사건(1914): 오스트리아-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됨
- 개전: 오-헝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→ 러시아가 세르비아 지지 →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 → 프랑스, 영국 참전 → 오스만, 동맹국 가담  
이탈리아·일본이 협상국 가담  
(1915)

- 전개: 독일, 서부전선 진격 → 마른 전투(1914)에서 프랑스에 패배, 참호전 전개
  - 독일, 무제한 잠수함 작전 → 루시타니아호 침몰, 미국 참전(1917)
  - 러시아 혁명(1917) → 브레스트-리토프스크 조약(1918), 독일-러시아 간 종전
- 종결: 오스만 제국·오스트리아-헝가리 제국 항복 → 독일, 쾰른 근항 수병의 반란을 계기로 혁명 발생 → 빌헬름 2세 퇴위, 공화국 수립 → 독일 항복(1918)
- 특징: 총력전, 탱크·독가스·전투기 등장, 다다이즘 출현

##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

- 평화 원칙 14개조(1918): 미국의 윌슨이 제창, 비밀 외교 금지, 민족자결주의 주장
- 파리 강화 회의:(1919~1920), 평화 원칙 14개조 기반, 승전국에 이익·패전국에 보복
- 베르사유 조약(1919): 독일-승전국 체결,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, 프랑스에 알자스·로렌 할양, 자르 지역 분리, 징병제 폐지
- 국제연맹 창설(1920): 실질적 무력 X, 초기에 독일·소련 배제, 미국 불참
- 워싱턴 회의(1921~1922), 런던 회의(1930): 군비 축소
- 도스안(1924), 영안(1929): 독일의 배상금 축소
- 로카르노 조약(1925):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 결의,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향의
- 켈로그-브리안 조약(부전조약, 1928): 국가 정책 수단으로의 전쟁 포기

##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

- 바이마르 공화국 설립(1918), 바이마르 헌법 제정(1919)
- 오스트리아-헝가리 & 오스만: 제정 → 공화정 전환, 신생국 또한 공화정 채택
-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 폐지, 여성에게도 선거권 도입

##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성립

- 사회주의 확산, 차르의 전제 정치 몰락, 러일 전쟁 열세 →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화 시위 → 무력 진압(1905) → 시위 진압 → 니콜라이 2세가 시민 자유·두마(의회)의 입법권 보장 등 개혁 약속 but 성과 미흡

- 3월 혁명(1917.3.): 제 1차 세계대전 열세, 국민 불만 고조 → 노동자 & 병사 소비에트의 혁명 → 제정 붕괴, 임시 정부 수립
- 11월 혁명(1917.11): 임시정부가 전쟁 지속 → 레닌 주도의 볼셰비키(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소속, 멘셰비키와 대립)의 혁명 → 임시정부 붕괴, 소비에트 정부 수립 → 내전 발생
- 레닌:
  - 의회 해산, 독일과 브레스트-리토프스크 조약 체결(1918), 종전
  - 코민테른 조직(1919), 토지 분배, 주요산업 국유화
  - 전시공산주의·경제 악화 → 신경제 정책(NEP) 시행, 자본주의 일부 수용
  - 내전 수습,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(소련) 수립(1922)
- 스탈린:
  - 레닌 사후 집권,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(1928), 중공업 육성 & 농업 집단화 → 경제 성장
  - 반대파 숙청, 독재 체제 강화

### 한국의 3·1 운동(1919)

- 배경: 일제의 무단 통치, 국내외 독립운동 지속
- 결과: 3·1 운동 전개(1919) → 5·4 운동에 영향

### 중국의 민족운동

- 5·4 운동: 파리 강화 회의에서 21개조 요구 인정 → 베이징 학생 중심으로(1919) 대규모 시위 전개(1919) → 반일·반군벌 운동으로 확산
- 쑨원이 중국 국민당 결성(1919), 천두슈 등이 중국 공산당 결성(1921)
  - 제 1차 국공합작(1924~1927), 국민혁명 추진 → 쑨원 사후 장제스 집권
  - 북벌 단행, 공산당 탄압·국공합작 와해 → 베이징 절령, 국민혁명 완성(1928)
- 만주 사변(1931), 만주국 수립(1932) → 장제스의 공산당 탄압 지속
  - 공산당 홍군이 대장정 단행(1934~1936), 연안으로 이동
- 장쑤량의 시안 사건(1936) → 중일전쟁(1937), 제 2차 국공합작 결성(1937)

## 인도의 민족운동

- 1차 세계대전 시기: 자치권 약속을 토대로 영국에 협력 → 영국이 쿨릿법 제정(1919)
- 간디: 비폭력·불복종 운동 전개, 쿨릿법 폐지·자치 확대 요구, 소금법(1930)에 맞서 소금 행진 전개(1930)
- 네루: 인도 독립동맹 결성(1928), 인도의 완전한 독립 요구  
→ 신인도 통치법(1935): 군사·외교를 제외한 각주의 자치권 인정

##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

- 베트남: 독립보장을 조건으로 1차 세계대전 시기 프랑스 지원 → 프랑스의 불이행  
→ 호찌민이 베트남공산당(인도차이나 공산당) 결성(1930)
- 인도네시아: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 결성(1927)

## 서아시아의 민족운동

- 터키: 오스만 제국 패전 →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공화국 수립(1923), 근대화·세속화 추진, 신국 문자 제정
- 팔레스타인: 맥아흔 서한(1915, for 아랍인), 벨푸어 서한(1917, for 유대인)

## 대공황

- 배경: 1차 세계대전 후 과잉 생산·투자, 재고 급증
- 전개: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 폭락(1929) → 미국의 기업·은행 도산, 실업자 속출 → 전 세계로 확산
- 대응: · 미국: 루스벨트 대통령이 케인즈의 주장 수용, 뉴딜 정책 시행;  
농업조정법(1933)·테네시강 유역 개발·전국산업부흥법(1933)·와그너법(1935)·사회보장법(1935)
- 미국·영국·프랑스·일본: 각각 달러·파운드·프랑·엔 블록 형성
- 전체주의 확산, 대외 팽창 추진

## 전체주의의 대두

- 이탈리아: 전후 물가 폭등, 실업자 양산, 사회 불안 → 무솔리니가 파시스트당 결성, 로마 진군(1922)으로 정권 장악, 일당 독재체제 구축
- 독일: 대공황 → 히틀러의 나치당이 극단적 민족주의·인종주의 주장 → 선거를 통해 나치당 집권(1933), 국제연맹 탈퇴(1933), 게슈타포 동원 → 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(1934)
- 일본: 대공황 → 만주 사변(1931) → 만주국 수립(1932), 군부 쿠데타 발생(1932) → 국제연맹 탈퇴(1933)

## 제 2차 세계대전 직전의 국제 정세

-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략(1935~1936) → 이탈리아, 국제연맹 탈퇴(1936)
- 일본이 중일 전쟁 개시(1937), 난징대학살 자행(1937)
- 독일·이탈리아가 에스파냐 내전 개입(1936~1939), 프랑코 지원, 독일·이탈리아·일본이 3국 방공협정 체결(1937), 추축국 진영 형성
- 독일: 재무장 선언(1935), 라인란트 진주(1936) → 오스트리아 병합(1938), 체코슬로바키아 수데텐 점령(1938) → 체코슬로바키아 병합(1939), 폴란드 회랑 요구 → 영국·프랑스의 거부 → 소련과 독·소 불가침 조약 체결(1939.8.)

## 제 2차 세계대전(1939~1945)

- 유럽: 독일이 폴란드 침공(1939.9) → 영국·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 → 독일이 노르웨이·덴마크·네덜란드·벨기에 침략, 프랑스 공격 → 파리 점령, 비시 프랑스 수립(1940) → 드골이 영국에 망명정부 수립, 레지스탕스 운동 전개
- 이탈리아가 그리스 침공(1940), 북아프리카 침공
- 독일이 독·소 불가침 조약 파기, 독·소 전쟁 발발(1941) → 스탈린그라드 전투(1942), 소련 승리
- 미국 참전(1941) → 무솔리니 몰락, 이탈리아 항복(1943)

→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(1944), 파리 탈환, 독일 진격 → 베를린 점령, 독일의 무조건 항복(1945.5)

· 태평양: 중·일 전쟁 장기화 → 동남아시아 침략 → 미국이 대일본 석유·전쟁물자 수출 금지 →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습격, 태평양전쟁 발발(1941.12.), 필리핀 점령 → 미드웨이 해전(1942), 미국 승리, 일본 본토 공습 전개 → 미국이 히로시마·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투하, 소련 참전 → 일본 무조건 항복(1945.8.)

· 민간인 피해: 나치 독일의 유대인 홀로코스트(아우슈비츠 수용소 등), 일본군 위안부, 연합군의 드레스덴 폭격(1943), 731부대 실험

## 제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

- 대서양 헌장(1941):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 천명
- 카이로 회담(1943): 미·영·중 참가, 전후 일본 처리·한국 독립문제 합의
- 알타 회담(1945.2): 미·영·중·소 참가  
· 전후 독일 처리·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
- 포츠담 회담(1945.7): 미·영·중 참가,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
- 독일: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(1945~1946), 미·영·프·소의 분할 점령
- 일본: 도쿄에서 극동 국제군사재판(1946~1948), 미군의 지배
- UN 출범(1945.10): 국제연합 헌장(1945.6) → 국제연합 출범  
· 안전보장이사회 & 상임이사국(미, 영, 프, 중, 소) 권한 강력  
· 국제연합군 등을 통한 무력 투사 가능

##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

- 브레턴우즈 회의(1944): 미국 달러를 주거래 통화로 지정, 고정환율제 시행, 국제부흥 개발 은행(IBRD), 국제 통화 기금(IMF) 창설
-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(GATT) 체결(1947)

## VI. 현대 세계의 변화

### 냉전의 형성

- 배경: 동유럽 공산화, 그리스·터키에 공산주의 세력 확대
- 자본주의: · 트루먼 독트린 (1947): 그리스·터키 등에 군사·경제적 지원 약속
- 마셜 계획 (1947): 서유럽의 경제 재건
- 북대서양 조약 기구 (NATO) 결성 (1949), 집단방위체제 구축
- 공산주의: · 코민포름 (공산당 정보국) 결성 (1947), 코메콘 (경제상호원조회의) 결성 (1949)
- 바르샤바 조약 기구 (WTO) 결성 (1955)

### 냉전의 확산

- 독일: 미·영·프가 서독의 행정·경제 통합 → 소련이 서베를린 봉쇄 (베를린 봉쇄, 1948~1949) → 동·서독 분단 (1949) → 베를린 장벽 건설 (1961)
- 중국: 국민당 vs 공산당의 국공 내전 발발 (1946~1949) → 공산당 승리,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(1949)
- 한국: 남·북한 분단 (1948) → 북한의 남침, 6.25 전쟁 발발 (1950)  
→ 유엔군 & 중국군 개입, 국제적으로 확대, 샌프란시스코 조약 (1951)으로 일본 주권 회복
- 베트남: 프랑스에서 독립 → 남·북베트남 분단 (1955), 베트남 전쟁 발발 (1955)  
→ 미국 참전 (1964) → 재정 부담, 반전 여론 → 미군 철수 (1973)  
→ 북베트남 승리, 베트남 통일 (1975)
- 쿠바: 미·소의 핵무기 경쟁 →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 건설 시도 (쿠바 미사일 위기, 1962)

## 식민지의 독립과 제3세계의 형성

- 식민지 독립 : · 인도 & 파키스탄 독립 (1947), 인도네시아 · 필리핀 등 독립
  - 영국에서 가나 독립 (1957), "아프리카의 해" (1960), 알제리 독립전쟁 (1954 ~ 1962) → 프랑스에서 독립 (1962)
- 제3세계 : 비동맹 중립주의 표방
  - 평화 5원칙 (1954) : 넬루 총리 (인도) & 저우언라이 총리 (중국) 발표
  - 평화 10원칙 (1955) : 인도네시아 반동의 아시아·아프리카 회의 (반동회의)에서 발표
  - 제1차 비동맹 회의 (1961) : 티토 (유고슬라비아) · 넬루 (인도) · 나세르 (이집트) 등이 베오그라드에서 개최

## 냉전의 완화

- 소련 : · 흐루쇼프 : 평화 공존 추구, 스탈린 비판, 서독-소련 수교 (1955), 미국 방문
  - 중국-소련 간 관계 악화
- 미국 : 닉슨 독트린 (1969), 중국과 핑퐁 외교 전개 → 닉슨의 중국 방문 (1972),
  -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 (SALT) 체결 (1972, 1979)
  -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 (1973), 미-중 수교 (1979)
- 유럽 : · 서독 :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→ 동·서독 UN 동시 가입 (1963)
  - 유럽 경제 공동체 수립 (1957), 프랑스가 NATO 탈퇴 (1966)

## 냉전의 해체

- 소련 : · 브레즈네프 집권, 공산당 관료체제 강화, 경제 침체
  - 고르바초프 :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 (1985), 페레스트로이카 · 글라스노스트 추진 ; 시장경제 도입, 정치 민주화, 언론 통제 완화 추진, 동유럽 불가침 선언 → 각 공화국이 독립 선포 시작
  - 쿠데타 발생 → 엘친의 지지 →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해체 → 엘친 주도로 독립국가연합 (CIS) 결성, 소련 해체 (1991)
- 헝가리 : 복수 정당제 · 시장 경제 기반의 공화국 수립 (1989)

- 폴란드: 자유 총선거에서 바웬사의 자유노조 승리, 바공산당 정권 수립(1989)
- 체코슬로바키아: 하벨 주도의 민주화 운동 → 공산당 정권 붕괴(1989)
- 루마니아: 차우세스쿠 독재 정권 붕괴(1989)
- 독일: 동독의 여행 자유화 조치 → 베를린 장벽 붕괴(1989) → 동독 자유총선, 독일 연합(통일 찬성) 승리 → 동독이 서독에 편입, 독일 통일(1990)
- 유고슬라비아: 각국 분리독립 → 유고슬라비아 해체(1992)

## 중국의 변화

- 마오쩌둥:
  - 토지 개혁, 은행·기업·산업 국유화
  - 대약진 운동, 인민공사 조직(1958) → 무리한 계획·자연재해로 실패 → 류샤오치·덩샤오핑이 실용적 경제 정책 추진
  - 문화대혁명: (1966~1976), 반대파 숙청, 홍위병 동원, 전통유산 파괴, 지식인·예술인 억압
- 덩샤오핑:
  - 마오쩌둥 사후 집권(1976), 문화대혁명 과오 인정
  - '흑묘백묘론' 포방, 경제특구 설치, 시장경제 일부 도입, 개혁·개방 추진 → 급속한 경제 성장
  - 빈부 격차 심화, 공산당원·관료의 부정부패 → 부정부패 근절·정치 민주화 요구 → 톈안먼 사건(1989) → 남순 강화(1992)
- 발전: 영국에서 홍콩 반환(1997), 포르투갈에서 마카오 반환(1998), 베이징 올림픽 개최(2008)

## 무역 질서의 변화

- 경제 공동체: 동남아시아 국가연합(ASEAN, 1967),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(APEC, 1989), 북미 자유무역협정(NAFTA, 1992, 캐·맥·미), 미주 자유무역지대(FTAA, 1994), 아세안 자유무역지대(AFTA, 2003), 남미 국가연합(UNASUR, 2008)
- 유럽: 유럽석탄철강공동체(ECSC, 1952) → 유럽 경제 공동체(EEC) & 유럽 원자력공동체(1957) → 3개가 유럽 공동체(EC)로 통합(1967),

유럽 의회 성립 → 마스트리히트 조약(1992), 유럽연합(EU) 출범(1993)

→ 유로 통용(1999) → 영국 탈퇴(브렉시트, 2016)

· 무역: 석유 파동(1973, 1979) → 신자유주의 대두, 세계화 촉진

· 세계 무역기구(WTO) 창설(1995), FTA 체결

## 국제 분쟁과 테러리즘

- 팔레스타인 분쟁: 유대인이 이스라엘 건국(1948), 중동 전쟁 발발 →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(PLO) 창설(1964) →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협상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(1994)

- 르완다 내전: 벨기에에서 르완다 독립 → 후투족-투치족 분쟁, 학살 자행(1994)

- 기타: 카슈미르 분쟁(인도-파키스탄), 콩고 내전, 유고슬라비아 내전, 카스피해 분쟁, 센카쿠 열도 분쟁, 스포라틀리군도 분쟁

- 테러리즘: 9.11 테러(2001), 세계 무역센터 공격당함

→ 미국, '테러와의 전쟁' 선포